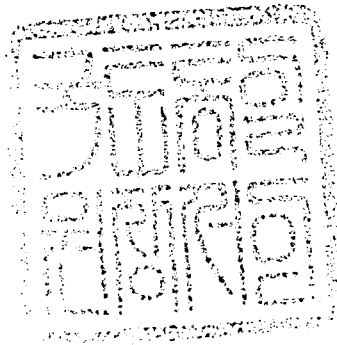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6월 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 김 하 룡

연구 원 : 김 남 식

目 次

一. 共產主義의 協商概念	3
二. 北韓의 對南戰略과 協商	15
1. 1948 年の 南北連席會議 戰略	15
2. 休戰協商 戰略	22
3. 제네바 政治會議와 軍事停戰委員會	29
4. 平和統一攻勢와 協商提議意圖	34
三. 最近 南北韓協商에 있어서의 北韓側 戰略과 協商 테크닉	41
1. 南北赤十字會談에서의 協商技巧	41
2. 南北調節委員會와 協商運營의 方向技巧	53
四. 우리의 對備策	64

THE UNIVERSITY OF CHICAGO

PH.D. THESIS

1. TITLE: [Faint text]

2. AUTHOR: [Faint text]

3. DEPARTMENT: [Faint text]

4. YEAR: [Faint text]

5. ADVISOR: [Faint text]

6. COMMITTEE: [Faint text]

7. ABSTRACT: [Faint text]

8. KEYWORDS: [Faint text]

9. DISTRIBUTION STATEMENT: [Faint text]

10. OTHER INFORMATION: [Faint text]

一. 共產主義의 協商概念

널리 알려진 見解에 따르면 共產主義者들이 和平協商을 포방하고, 對敵手段으로 親善的 제스추어를 展開하는 主要因은 自体力量이 未弱할 때의 強敵對敵方案이라 한다.

리만·스라이크 (Lyman Van P. Slyke)는 그의 名著 Enemies and Friends ; The United Front in Chinese Communist History에서 共產主義者들이 적에 대한 協商이란 口號를 내걸고, 和平協商, 平和共存 云云…… 하는 것은 黨建設 (Party Construction), 統一戰線의 形成 (Formation of United Front), 武裝暴動 (Armed Rebellion) 準備의 3大目標로 集約된다고 定義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概念을 크라우제츠 (Clausewitz)의 戰爭은 平和의 交替概念이란 '戰爭論'에서 그 根柢를 도출해 내고 있다. 레닌은 協商概念으로 「누가 누구를 몰아내느냐, 누가 누구를 돕느냐, 누가 누구를 방해하는가」하는 所謂 主客理論 (Who-whom theory)을 創案해냈다.

또한 毛沢東도 레닌의 主客理論을 그의 長技인 遊擊戰術에 活用, 主客理論의 土着化를 試圖하여 遊擊戰術의 三段階에 따라 退脚期의 協商, 防兒期, 攻擊期의 協商으로 登展시켰던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協商을 戰爭의 한 形態로 看做하며, 武裝暴動을 成功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補助的 方案으로 活用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協商에 對한 二重概念 곧 「세계는 곧 敵이다」라는 敵對的 疑心으로 一貫시키며, 國家間의 永遠한 友好關係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永久한 友好關係가 存在할 수는 없고 잠정적인 敵일 수 밖에 없다고, 兵法의 遠交近攻法과 近似한 概念의 戰術을 活用하고 있다.

目標上으로 본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概念은 우선 內戰期의 協商, 熱戰期의 協商, 冷戰期의 協商, 對話期의 協商等 時代別로 그 目標가 變遷해 왔다고 할 것이다. 內戰期의 協商은 우선 內向性 政權 鬭爭이었다는 點에서 다른 時代의 協商 概念과 區別된다 하겠다.

內戰期의 協商時에도 自体勢力이 未弱할 때, 어느 程度 成長했을 때, 對敵攻擊이 可能할 때의 協商으로 分離할 수 있다. 自体勢力이 未弱할 때는 談談打打라는 口號를 내걸고 敵의 攻擊을 피하기 위해 和平談判을 하여 強敵이 내세우는 條件을 無條件적으로 受諾하며, 進行하는 中에 陰性違約으로 敵의 성급성과 表面的인 違約을 誘導하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이때 退脚엄호, 成長發展을 위해 外廓團體를 포섭 活用한다. 內戰期에 이들은 黨建設, 武裝暴動, 統一戰線의 3大目標를 내걸고, 敵의 攻擊을 豫防하고, 이틈에 成長發展하여, 敵陣을 교란시켜 敵地內部에 自体勢力을 부식시킨다. 敵地에 後方遊擊根拠地를 확충하여 무장준비를 엄폐하고 輿論을 선동하여 敵의 攻擊을 막을 수 있는 方向으로 이것을 誘導한다. 또한 自体의 孤立을 막을 수 있는 反孤立化를 促進함과 同時에 與論과

外勢의 支持를 얻어 敵을 獨立시키며 和平과 戰爭을 併用하는 打
打談談의 二重戰術을 展開하여 2個의 國家觀을 對內外에 부각시키
는데 注力했다. 敵과 軍事的으로 對峙하여 熱戰을 展開하던 熱戰
期의 協商目標은 自體內의 諸般條件을 극복하여 自體團合을 爲해
反帝國主義 鬭爭을 강화하며, 軍事的으로 敗北한 상황을 協商으로
만회할 것을 시도한다.

또한 冷戰體制下에서의 協商은 國力과 國際的 地位 伸張을 爲해
國際 푸로레타리아革命 輸出을 촉진 강화하며 緊張緩和와 國家地位
向上을 爲해 可能한 方途를 講究한다. 對話期의 協商에서는 國力
과 國家의 地位를 伸張할 수 있는 諸般 交流를 試圖하며, 人民戰
爭精神의 高취로 自體內部的 結束을 망라하고, 國際革命의 決定的
時期의 誘導를 시도하고, 敵의 주도권과 경제력에 對한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努力을 展開하고, 理念보다는 實利를 優先 추구한다.

共產主義者들의 協商에 對한 概念上의 特徵을 一覽해 본다면 우
선 武力第一主義 即, 「政治權力은 銃口에서 나온다」는 打天下思想
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으며, 協商을 戰爭의 한 形態인 別種戰
爭으로 看做하고 있다. 언제나 그들은 미니·멕시 (Mini-max)
戰術인 西方協商家들이 輿論과 言論 및 政策上의 諸壓力을 받고
있다는 弱點을 逆用하여 二重戰略을 取해 短期協商에서는 最小의
利益을 얻고 長期間에 걸쳐서는 最大의 利益을 노리는 戰術로 臨
해 왔다. 레닌의 主客理論 (Who's Whom Theory)을 活用하여
協商은 부르주아階級이나 少부르주아階級과의 統一戰線形成을 도모하

는 것 같은 프롤레타리아革命的 한 段階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지연작전을 持久的으로 展開한다고 한다.

自體의 힘이 미약할 때는 자기의 合法性을 主張하고 對外的으로 2個의 國家觀을 부각시키며, 對內的 政治權力鬭爭 協商으로 局限시켜 外勢와 外廓團體를 적극적으로 活用한다. 軍事的 敗北을 정치공세로 만회하려는 熱戰期의 協商에서는 어느때보다 억지와 毒說 및 威脅의 強度를 더하여 不當한 利益을 獨占하려는 戰略으로 임한다.

冷戰期의 協商에서는 敵에 對한 극과 극의 相反된 利害組成으로 理念的, 歷史的, 感情的 對立으로 對하면서도 拔戰防止와 緊張緩和를 爲해 協商場을 긴장고조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情報 탐색소로 活用하려는 努力을 경주한다.

특히 對話期의 協商에서는 平和共存의 口號로 敵의 적개심의 둔화를 유도하고, 土着革命的 과시로 自主성을 과시하며, 等距離 外交를 유도하고 外勢의 확대 포섭을 시도한다. 同時에 소극적으로 協商을 유도하여, 敵의 양보를 얻도록 노력하고, 自體의 好戰性과 軍事的 준비를 위장하며 적을 고립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며, 共產主義 필승론을 신봉하여 지연전술이 보착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戰略, 戰術上的 側面에서 볼 때, 共產主義者들의 協商은 敵對性과 背他性, 완고성을 견지하며, 協商進行에서의 주도권을 위해 遊擊戰 위주의 정치적 기습제에 치중한다. 이들은 또한 協商의 정치적

업에 있어서 기선장악을 위해 여러가지 事件을 조작하여, 이것을 自体의 設計된 宣傳效果에 직결시킨다. 강탈적 요구로 흥정을 시도하며 태연하게 위약하여 그 위약 責任을 적에게 전가시킨다. 体面이나 道德 및 倫理觀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外面하며, 共產主義의 敎理 및 그들의 理想과 論理의 선전과 敵에 對한 비난과 공격이 徹底화되어 있다.

同時에 協商을 進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敵 内部 침투를 위한 心理戰을 展開하여 敵 内部의 반목, 질시 要素를 개발하고, 選舉期 라든지 自由陣營의 矛盾개발에 주력하며 自由陣營의 성급성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自由陣營의 政權을 少數의 支配에 의한 獨佔政權으로 선동하여 國家와 國民間의 離間 主張을 시도한다.

具體적인 合意나 討議를 先行할 原則的 포괄적인 合意를 주장하여 外勢와 여론의 선동에 주력한다. 응분보복개념 (Tit for Tat) 을 견지하며 미나·멕시코전술을 다양한 側面에서 개발한다.

또한 격론끝에 協定文 作成이나 調印段階에 돌입하면 協定의 궁지모면을 위한 임기응변 수단으로 간주하여 그 遲返의 여지를 개발한다. 共產理念에 맹종하며 上部의 指示에 의한 脚本연출에 불과하고, 협정을 위반할 때도 음성으로 위반하여 敵의 위반을 유도한다. 그들은 접경지역 등에서 代表者들로 하여금 敵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하면서도 情報를 엄격히 統制하여 그들이 필요한 대로 조작한다. 議題問題에 있어서도 自己들의 의제를 완강하게 고집하며, 確固한 敵의 立場을 외면하고 親善的 계스추어로

수니정치회담을 유도하려는 데 主力한다.

以上에서 簡略하게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概念 및 戰略, 戰術을 간추려 보았다.

結局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概念은 時代에 關係없이 大同小異하며, 자체세력이 미약할 때 退脚掩護하고, 自体의 勢力이 어느 정도 成長하면 成長發展을 시도하며, 對内外 支援을 擴大포섭하여 敵을 獨立시키고, 攻擊을 合理化시키는 方向으로 점점 發展해 간다. 이같은 方法은 中國의 國共合作케이스에서 잘 活用되었다. 時代가 變천함에 따라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戰略, 戰術은 다양해지고, 技巧化, 體系化되어 왔으며, 土着화된 여건에 따른 現實的인 戰術을 活用한다.

다음으로 共產國家別 協商概念 및 戰略, 戰術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소련의 협상개념은 國家間的 영원한 友好關係는 있을 수 없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모든 外國人은 潛在的 敵일 뿐이라는 「世界는 곧 적이다」라는 확고한 二重的 信念에 입각하고 있다. 그들은 對内鬪爭에서도 푸르레타리아 勝利를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부르조아要素와 統一戰線을 展開하자는 소위 聯政 (Coalition Government) 을 포방하고 나오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統一戰線은 形式上으로 盟友와 연합해서 共同敵에 對抗한다는 것이나 實質的으로는 對敵作戰과정에서 共同作戰을 수행하고 있는 盟友를 背後에서 孤立시키고 打倒하여 殺害한다는 底意로 임하는바, 國

共合作期에 毛沢東의 戰略指針이 7分 自体發展, 2分 国共合作維持, 1分 抗日鬭爭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네들의 統一戰線의 本質이라 할 것이다.

協商에 임하는 소련인의 世界觀을 구성하는 根本要素가 敵對感과 의심이며, 反帝國主義로 불리워지는 階級鬭爭의 現代 共產主義 理論이다.

西方協商家들이 소련의 協商概念을 究明한 바에 의하면, 적은 교묘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쓴다고 소련은 생각하여 敵이 最終 순간에 결정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一時的으로 던져주는 미끼를 믿어선 안된다고 했다. 敵의 底意를 充分히 檢討하여야 된다고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 노동자들의 슬로건은 말을 신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철저히 검토해 봐야 한다... .. 오직 바보들만이 말뿐인 말을 신용한다'고 1926년 말한 바 있다.

敵의 立場이 確固하다 해서 소련의 立場을 離脱하는 言動을 해서는 안된다.

소련은 敵과 根本적인 妥協이 不可能하다고 본다. 모슬리 (Phillip mosley)가 지적한대로 소련은 말을 신용치 않으며 다만 말이란 修飾적인 陳腐性을 띄고 習貫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協商에서 西方側이 어떤 問題에 關係 妥協案을 내놓을 경우 소련측은 當황하거나 冷笑의이 될 것이며 相對方이 일찍부터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련이 追求하는 目的앞에는 倫理나 道德이 없다. 그들은 共產 國家의 道德은 푸로레타리아階級鬪爭으로부터 나오며, 푸로레타리아階 級의 倫理나 道德은 그의 敵對階級인 부르주아階級の 그것과는 相 異하다고 前提한다. 레닌은 '우리의 도덕은 구착취사회를 파괴하 고 모든 노동자들을 푸로레타리아로 단결시키는데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소련 협상가들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후견인 격인 共產黨이 君臨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소련과의 協商은 論理 的으로는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無意味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疑구심과 非妥協으로 代表되는 소련의 協商態度 한구석에는 고도 로 기교화된 實用主義가 자리 잡고 있다. 레닌을 위시한 많은 소 련 共產主義者들은 이데올로기와 共產理論으로 무장되어 있다. 레 닌은 언제나 戰略家인 동시에 戰術家였으며, 權力을 잡고 또 유지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치뤄야 할 희생이 수반됨을 잘 알고 있었 다. 레닌 이후의 소련 지도자들에게도 이같은 概念이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이란 용어는 항상 누가 누구를 과멸 시키느냐는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누가 누구를 반대하고 있느냐는 등 온전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協商에 대해서 後退의 길을 마련해 주고도 있다고 할 것이다. 1927년 스탈린은 國共 合作 失敗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르크스主義를 固守하는 자만이 항상 적에 대한 즉각적인 勝利를 保障해 주는 올바른 政策의 體

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38년에는 레닌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人間은 最後 순간에 어떻게 후퇴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後退란 全面的인 勝利를 主張하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의 公約에 分明히 矛盾되는 概念이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後退와 屈伏이라는 概念에 커다란 差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항을 전제로 미루어 볼 때 소련의 對外協商目標은 最大와 最少 사이를 自由롭게 來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最大目的은 두말할 것 없이 부르조아帝國主義의 對西方 鬪爭에서 全面 勝利를 거두는 것이고, 最少 目的은 보다 큰 目標들이 實現될 수 없을 때 소련의 國利만이라도 保護하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소련의 협상전술을 다음의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表面上으로 내색하지 않고 敵國의 제의를 거부한다. ② 소련의 政策과 全世界의 念願을 연결시킨다. ③ 西方 불력 特히 美國의 政策이 침략적이라는 것을 널리 알린다. ④ 相對의 戰略的 優위를 政治的으로 利用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⑤ 協商과정에선 지연작전을 전개한다.

소련의 協상개념은 要컨대 마르크스 변증법을 적용하여 伸縮性과 強硬論을 同時에 自由롭게 구사하는 것이 協商戰略·戰術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協商概念을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中共의 協商유형에는 歷代 中國人들의 變방 만족에 對하는 式의

의혹과 격렬이 가득차 있다. 제국주의와 계급의 적을 보는 그들의 마르크스·레닌·毛沢東主義의 見解의 저류에는 傳統的인 中國人의 外國人 憎오증과 中國人 우월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다.

國共合作은 毛沢東이 打天下思想의 맹신자임을 입증해 주었다. 한국전쟁으로 本土問題가 심각하게 되자 休戰協商에 임했고, 1958年 金門島와 馬祖島 危機時에는 美國에 對해 協商의 緊要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것은 中共의 敵對的 協商의 다른 局面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北朝鮮의 實用主義와 유사한 側面을 암시해 준다.

中共協商戰略, 戰術은 教條主義에서 實用主義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다.

케네스 영 (Keneth T. Young) 은 판문점과 제네바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中共人들의 協商態度를 간략하게 분석했다.

① 中共協商家들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스트이다. 따라서 協商概念은 西方側 概念과 判異하고, 兩立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② 中共協商家들은 미니·맥시 同時 추구자들이다. 그들은 戰術的 側面에선 最少의 利益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敵으로부터 중대양보를 얻어 내려는 最大의 장기적 目標에서 흥정한다. ③ 냉혹한 적대적 흥정과 여기에 中共이 어떤 合意에 도달하는 관심을 보이는 양보적인 集中的 흥정을 추가하는 것이 中共의 특색인 바 이것은 協商의 2중적 개념을 형성한다. ④ 접촉은 유지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지극히 까다롭다. ⑤ 잠정적인 폭발적 사태를 통제하

거나 공식적인 흥정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中共의 행위를 相對와 일치선상에 놓는 默示策을 이용한다.

以上에서 간략하게 中共과 소련의 協商개념을 분석하였는바, 대략 소련과 中공의 협상진행과 전략, 기술상의 유형은 대동소이하다 할 것이다.

우선 兩國의 共通점을 억지로 羅烈한다면, 마르크스·레닌理論을 同時에 추구하며, 레닌의 主客理論에 依拠 協상을 유도하고, 國際프로레타리아 革命을 추구한다. 兩國 共히 완강한 배타적 적개심을 견지하여, 敵과는 비타협적 고집만을 내세우며, 時間의 지연은 共產主義의 勝利의 捷徑이라 생각한 나머지 지연작전을 전개하고, 革命을 수출할 것을 시도, 직접·간접적 手段에 依한 가능한 方法을 총동원한다. 國家間에는 잠정적인 共存이 있을 뿐이라고 믿으며, 協商을 전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2重의 협상을 유도한다.

共產主義의 필승론을 맹신하며, 강탈적 제의로 일관되어 의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되 一方通行的인 자세를 취하고 프로레타리아 도덕과 윤리관을 강조하여, 부르조아 階級과의 약속이나 協定을 자의로 파기, 위약하며, 弁證法에 의한 伸縮성과 強硬論을 併用하여 主張한다는 點 등이 두드러지게 흡사하다 할 것이다.

具體적으로 소련과 中共의 協商유형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먼저 소련은 共產陣營의 代弁人的 자세로 임하여 소련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후덕한 國家라는 概念으로 임한다. 레닌의 主客理論을 協商公式으로 活用하고 있고, 共產陣營의 교조국임에도 理念

추구보다는 實利에 우선하며, 西歐화된 戰術을 展開하여 세계를 적의 포위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협상대표들은 대단히 민감하고, 과립치하며, 까다롭고, 個人的인 接觸이 완고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中共의 協商유형상의 특징은 中國 古來의 中華思想과 毛沢東思想이 혼합된 상태에서 전국시대의 군웅의 활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協商戰略을 다분히 활용한다. 특히 레닌의 主客理論을 土着化하여 毛沢東의 장기인 遊擊戰術에 활용, 유격전 위주의 政治攻勢로 임하며, 武力 第一主義인 打天下思想을 맹종하며, 協商을 革命과정의 한단계로 간주하며, 응분보복개념에 민감하다. 이들은 共產戰術의 中國의 土着化를 시도하며, 協商代表들의 個人接觸이 비교적 용이하며 민감, 후덕, 호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共產主義理論을 東洋化한 教條主義段階의 共產전술을 활용한다.

이상에서 일별해 본 共產國家의 협상유형은 中共이나 소련 또는 월맹, 북한等 共產國家들이 時代나 地域에 별관계 없이 대동소이하며, 巨視的 觀点에서 볼 때 共產國家들의 協商觀은 長期戰略에 宣傳效果와 目的 達成이란 概念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者들은 對西方國家의 協商戰略에서 다양한 要素를 지닌 西方体制의 矛盾을 제발하고, 協商進行에 있어서 결정적인 約点인 選舉期를 크게 逆用한다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共產國家의 時代나 地域에 따른 協商類型은 戰術的 側面에서 약간 相異한 것을 볼 수 있다.

二.北韓의 對南戰略과 協商

1. 1948年の 南北連席會議 戰略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에 따라 1946年 3月 21日 서울에서 美·소共同委員會가 열렸으나 5월에 無期休會로 들어갔다가 47年 5月 21日 再開되었다. 그러나 臨時政府樹立에 있어서 協議對象인 政黨·社會團體의 선정에 合意를 못보아 進展이 없음에 47年 9月 13日 美國側은 韓國問題를 U N總會에 上程할 것을 要求했다.

U N총회는 47年 11月 14日 韓國問題에 對한 美國案을 採択하고 U N韓國委員團을 構成 48年 3月 21日까지 總選舉를 할 것을 決定했다. 이에 따라 48年 1月 8日 U N韓國委員團이 來韓하였는데 北韓側의 入北거절로 南北韓 統一選舉가 不可能하게 되자 同年 2月 26日 U N總會에서는 「出入이 可能한 地域에서 만 선거를 實施한다」로 案이 可決되 結局 南韓에서만 선거를 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國內政界에 큰 分裂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李承晩은 南韓에서 만이라도 우선 政府를 세우야 한다는 데서 U N韓國委員團의 活動을 적극 지지하는 政治勢力을 形成했고 民族陣營의 金九를 위시한 一部人士들은 U N活動이 韓半島를 分斷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反對하고 나섰다.

金九는 48年 1月 26日 U N韓委를 訪問하고 美·소兩軍의 同

時撤退, 南北要人協商・總選舉實施등을 要求하면서 U N의 干涉을 反對하였다. 그는 2次에 걸쳐 聲明을 發表하고 어떠한 危險도 무릅쓰고 單政을 反對하겠다는 決意를 表明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金九와 金奎植은 南北協商을 열기 위한 措置를 취하였다.

即, 1948年 2月 16日 金日成・金料奉에게

- ① 民族의 永久分裂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 ② 우리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한다.
- ③ 南北政治協商을 하여 統一政府 수립방안을 모색
- ④ 南에서 政治協商을 贊成하는 政黨代表를 召集하고 協商代表로 退出한다.

는 內容의 書翰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書翰에 對한 어떤 反應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3月 25日 平壤放送으로 「全朝鮮 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다.

放送內容은 ① 美國은 朝鮮民族을 植民地 奴隸化하려고 한다. ② 모든 「民主勢力」을 團合하여 國內外的 「反動分子」의 흉악한 策動을 물리쳐야 한다. ③ 美軍撤收와 總選舉를 통한 統一國家樹立 ④ 4月 14日에 代表連席會를 平壤에서 開催하여 統一國家樹立을 위한 細部計劃을 採択할 것 등이었다.

招請狀은 南勞黨, 韓獨黨, 民主獨立黨등 7個團體에 보내졌다. 金九는 3月 29日 北韓으로부터 正式 招請狀을 받았다.

代表者連席會議은 4月 19日 平壤에서 開催되었는데 첫날은 開
會辭에 이어 11,311通에 達하는 祝賀메세지 및 42,253通의
書翰에 대한 報告를 하였다. 20日은 會談을 休會하였다가 21日
에 再開하였다. 代表者連席會議 參加 代表者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를 朱寧河가 하고, 「北朝鮮政治情勢」는 金日成이 「南朝鮮政治情勢」
는 南勞黨代表 朴憲永과 新民黨代表 白南雲이 報告하였다. 第3日
會議은 22日 午前에 再開되었는데 이 때에 金九, 趙素昂, 趙琬九
및 民主獨立黨의 黨首인 洪命熹가 各各 紹介되고 主序團에 추대되
었다. 그리고 報告에 對한 討論들이 進行되었다.

4日째 되는 4月 23日에 「南朝鮮情勢에 對한 決定書」와
「社會主義소베트聯邦共和國 政府와 北米合衆國 政府에 보내는 南北
朝鮮 諸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聯席會議의 要請書」와 「全朝鮮同胞에
게 激함」이라는 메세지와 呼訴文을 採択했다. 이로서 公式的인
會議은 一坦 끝나고 25日에는 金日成廣場에서 同代表者連席會議를
祝賀한다는 뜻에서 群衆大會가 있었다.

南北協商은 以上과 같이 進行되었는데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共產主義者들의 統一戰線政策의 一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戰略目
的을 造成하기 위한 手段이었다.

當時 共產主義者들의 基本戰略이라고 하면 UN監視下의 總選은
反對하고 소련에서 主張한 外軍 同時撤收와 南北總選이었는데, 우선
UN監視下의 總選舉를 南韓에서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사람일지라도 「單選」

만이라도 反對한다면 이들과 一時 제휴하여 廣泛한 聯合戰線을 펴는 것이 必要했던 것이다.

특히 金九, 金奎植등을 協議對象으로 한 것은 南韓 政界의 弱體化는 勿論이며 많은 群衆을 「單選」反對에로 動員시킬 수 있어서 大多數 人民들이 單選反對를 支持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자는데 있었다. 따라서 金日成은 「...이 連席會議는 左翼, 中間派 및 多數 右翼政黨과 社會團體들의 代表들이 참석했다.南北連席會議는 全體 朝鮮人民의 意見을 代表하여 南朝鮮의 單獨選舉를 거부하기로 決定했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以上에서 미루어 볼 때 「南北協商」은 協商이 아니라 北韓側의 一方的인 會議였다. 그것은

첫째, 南北協商에 對해 北韓側보다 1個月前에 南韓의 金九, 金奎植등이 먼저 提議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마치 北韓에서 먼저 提議한 것처럼 꾸몄다. 金九·金奎植의 協商提議書信에 對해서는 아무런 反應도 없었으며 1個月後에서야 會議를 開催하여 이에 參加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會議의 主導權掌握은 어느 側이 먼저 이를 提議했는가가 크게 作用한다는 점을 考慮한 때문일 것이다.

둘째, 會議에 對한 案件과 日程 및 計劃에 對해 아무런 事前協議도 없이 北韓側에서 單獨으로 作成된 계획에 의해서만 進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問題에 對한 方案 모색에 對해서는 討議할

수도 없었으며 單選을 反對하고 北韓側이 主張하는 兩軍撤收 및 南北總選을 再確認하는데 不週하였다.

報告 및 討論內容들이 모두 北韓側에서 事前에 作成한 것이었다.

세 재, 南北協商에 參加한 代表들은 모두다 「民戰」에 加擔된 團體들로서 左翼系 一色으로 되고 말았다.

北南側에서는 「北勞黨」을 비롯하여 15個 단체이며, 南韓에서는 41個 團體인데 그것도 南勞黨을 비롯한 左翼系 團體가 大部分이었다.

거기다가 어떠한 문제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舉手로서 「滿場一致」라는 方法을 採했기 때문에 몇몇의 個別的인 反對意思는 表示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 例로서 金奎植이 이끄는 民族自主聯盟의 政治委員인 金成圭란 사람은 北韓側의 一方的인 會議節次에 對해 不滿을 가지고 會議途中에 發言權을 要請하였으나 거절당하자 座席에서 일어나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2, 3 名의 青年들이 달려들어 그 사람을 會議場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한 事例도 있었다.

또한 當時 社会民主黨의 黨首인 呂運弘은 美·소兩國政府에 보내는 要請書作成委員會의 委員이었는데 朴憲永이가 起草한 內容이 너무나 反美的인 語句여서 이를 다른 말로 修正할 것을 提議했으나 朴憲永은 民主主義式으로 舉手 決定하자면서 거수표결에 붙였다. 기초위원은 7名이었는데 모두 北韓側에서 指名된 사람들이라 修正 動議가 採択될리 萬無었다 한다.

네째, 同代表者 連席會議에서 採択된 「朝鮮政治情勢에 對한 決定書」 「全朝鮮 同胞에게 激함」 「美·소兩國政府에 보내는 要請書」 등의 內容에는 모두 北韓側에서 事前에 目的한 것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즉, ①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이 實現되었으면 벌써 獨立되었다는 것.

② 美國은 韓國問題를 不法的으로 U N總會에 上程시켰다.

③ 「單獨選舉」를 「全體朝鮮人民」은 反對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강히 鬭爭할 것이다. ④ 外軍은 同時撤去하고 自主權을 주자는 소련의 提議를 支持한다.

이러한 決定內容으로 보아 南北協商이 目的한 초점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다섯째, 代表者連席會議는 會議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決定貫徹를 위한 行動組織체로 轉換시켰다.

즉 同會議에서 南勞黨委員長인 許憲은 「우리會議의 任務는 朝鮮의 政治情勢를 검토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회의는 또한 南韓側에서 準備되는 單獨選舉와 南朝鮮單獨政府樹立을 파탄시키는 대책을 토의 결정해야 하겠습니다」라고 討論하면서 그 대책으로서

① 單選을 反對하기 위한 政黨·社會團體의 強力한 統一戰線形成

② 單選反對를 위한 鬭爭에서 各己 所有하고 있는 모든 力量動員

③ 선거拒否를 위한 선전活動의 展開 ④ 「南朝鮮 單選反對鬭爭 全國委員會」의 組織은 同會議에 參加한 代表者로 構成할 것을 提

議하였다. 이러한 提議에 의해서 上記 組織을 構成하였는데 그후 同組織의 名議로 5. 10 선거를 反對케 하였다.

여섯째, 會議가 끝나면 반드시 平壤을 비롯한 北韓의 자랑거리를 觀람시키는 것이 이때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卽 4月 27日 金九와 그 수행원들을 萬景台(金日成生家)에 있는 革命家遺子女學院을 觀람시키고 金日成의 祖父를 만나게 하였다.

또한 5. 1節(메이·데) 記念 群衆大會에 參席시키고 人民軍의 閱병식을 보였다. 이는 北韓에 對한 宣傳과 동시에 敎養(포섭)의 뜻도 있는 것이었다.

일곱째, 公式的 會議가 끝난 다음 非公式的으로 北韓의 兩金(金日成, 金科奉)과 南韓의 兩金(金九, 金奎植)과의 소위 四金會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金九와 金奎植을 單選反對어로 引入시키기 위해 그들의 要求를 들어주는 척 했다.

卽, 北韓單獨政府樹立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延白貯水地 開放, 南에 送電을 中斷하지 않겠다는 約束을 하였다. 그러나 南韓의 總選舉가 5月 10日 執行된 후 소련當局은 더 이상 南韓에 送電할 수 없다고 通報해 왔고 延白平野에 물供給도 中斷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8月 25日에는 北韓에서도 선거를 실시하여 「人共」을 수립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約束을 하였다 하더라도 自己들에게 不利하다고 생각하면 그 約束을 파기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48年 4月에 開催된 南北協商은 北韓側의 「단선반대」를 하기 위한 一時的인 統一戰線을 取한 것이지, 同等한 資格과 立場으로 會議에 임해 統一方案을 모색하는 政治協商은 아닌 것이다.

金九, 金奎植등 南韓의 右翼, 中道派의 政治人은 結果적으로 北韓側의 單選反對에 利用을 當했을 뿐인 것이다.

2. 休戰協商 戰略

6. 25 動亂에 對한 休戰問題는 開戰後 1年도 못되어 論議되기 始作했다.

즉, 1951年 5月 17日 美 上院議員 에드윈 C. 존슨이 ① UN은 6月 25日 당시의 38線을 境界로 한 停戰을 宣言할 것 ② 모든 戰爭포로를 交換할 것. ③ 12月 31日까지 모든 外國軍隊는 撤收할 것 등의 內容의 決議案을 上院에 提出하였다.

이러한 案이 提出되자 소련側 新聞에 即刻 轉載되었고 그후 소련의 마리크는 同年 6月 23日 38線으로부터의 兵力의 相互撤收를 規定하는 休戰을 提唱하는 放送을 하였다. 27日에는 그로 미크가 休戰에 關한 다음과 같은 點을 明白히 밝혔다.

- ① UN군과 共産軍의 軍事代表를 相互交渉의 當事者로 할 것.
- ② 休戰은 軍事問題에만 한하고 政治나 領土問題는 干渉하지 않는다.
- ③ 雙方의 軍事代表는 敵對行爲의 再發을 防止하기 爲해 그 保

護問題를 討議한다.

한편 中共側도 6月 25日 「人民日報」를 通하여 모든 外國軍隊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고 韓國人 스스로 自身の 問題를 解決할 수 있어야 한다는 條件으로 休戰提案에 贊成했다.

이에 步調를 맞춘 北韓側도 6月 27日 平壤放送을 통해 마르크의 提案을 支持하면서 「朝鮮人民은 바야흐로 朝鮮의 歷史上 가장 심각한 試練에 直面하고 있다. 朝鮮人民軍은 中國義勇軍과 協力하여 敵을 3·8度線 以南으로 遂出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強調하였는데 「南海까지」가 아니라 3·8線 以南으로라고 修正하고 있다.

그후 UN事務總長은 UN軍司令官 리지웨이에게 政治的 問題는 후에 討議하고 軍事的 協商을 開始할 것을 指示하였다.

現地交渉權을 부여받는 리지웨이는 6月 3日 放送을 통해 共產側에게 元山港(休戰線에서 80 마일 北方)에 정박하고 있는 멘마크 病院船에서 休戰을 實施하는데 必要的 問題를 討議하자고 提案했다.

이에 對해 7月 2日 北京과 平壤放送을 통해 人民軍 司令官 金日成과 中共義勇軍 司令官인 彭德懷은 UN軍의 提案을 受諾하고 會談場所는 멘마크, 病院船 대신에 開城으로 하여 會談을 7月 10日~15日 사이에 始作하자는 것을 提議했다.

UN軍側은 北韓側의 提議를 수락하고 開城을 會談場所로 하고 7月 10日에 始作할 것을 通報했다. 7日, 8日에는 雙方 連絡將校團에 依히 豫備會談이 進行되고 1次 本會談에 對해 合義를

보고 双方 正式 代表名單의 交換이 있었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休戰會談은 1951年 7月 10日 午前 11時 開城에서 開催되었다.

會談은 始作되었으나 처음부터 双方의 意見이 對立되었다.

議案문제에 있어서 U N 側은 休戰會談은 오직 韓國戰爭을 休戰케 하는 것에만 局限시킬 것을 밝혔는데 이에 對해 共産側은 그 範圍를 擴大시켜 全 外國軍隊가 韓國으로부터의 즉각 撤收할 것을 내놓았다.

그러나 U N 側은 外國軍隊撤收問題는 政治的인 事項에 屬하기 때문에 休戰會談에서 討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였다.

双方이 合意된 討議問題로는

- ① 議題의 採択
- ② 敵對行爲停止의 基礎的 條件으로서의 非武装地帶를 設定하기 위한 双方의 軍事的 境界線 設定
- ③ 休戰實施을 위한 細目的 設定 (休戰을 위한 諸事項을 實行할 監視機關의 構成과 그 權限 및 機能包含)
- ④ 포로交換에 관한 諸問題
- ⑤ 双方의 關係 各國政府에 對한 권고

上記 合議된 議案을 가지고 休戰會談이 延行되었는데 2項의 非武装地帶 設置問題도 11月 23日 5個月만에 合意를 보았고, 第3項은 12月 10日 充分한 合意를 보지 못한채 4項인 포로교환문

제로 넘어갔다.

또한 52年 2月 19日에는 議案 第4項에 對하여「双方의 軍司令官은 關係 各國政府에 대하여 休戰協定 3個月 以內에 高位政治會談을 開催하도록 권고한다. 關係 各國政府는 이 會議에서 모든 外國軍隊를 韓國에서 撤收시키는 事項과 韓國問題 및 其他 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事項을 考慮하게끔 要請한다」는 것으로 妥結을 보았다.

53年 7月 未解決問題가 合義를 보아 同年 7月 27日 休戰協定이 調印되었다.

이는 休戰會談이 始作된지 2年 17日만에 575回의 公式會議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休戰會談에서 双方 主張과 妥結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軍事分界線(中立地帶) 設定에 있어서 共產側의 3·8線 主張이 UN側의 軍事接觸戰線으로 妥結

② 沿岸水域을 UN側이 12마일을 주장하고 共產側이 3마일을 주장하다가 3마일로 落着됨

③ 兵力의 交代는 UN側이 75,000名을 주장하고 共產側이 5,000名을 내세우다가 35,000名으로 合意됨

④ 中立國問題는 UN軍側이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3國을 共產側은 소련, 파란, 체코를 내세우다가 스위스·스웨덴, 파란, 체코로 落着

⑤ 出入港口는 UN側이 1·2個所 共產側이 3個所를 내세우다가 5個所로 妥結

⑥ 포로송환 문제는 UN側이 1:1 송환과 自由意思에 依한 송환을 주장하고, 共産側은 全体對 全体와 強制送還을 고집하다가 中立國委員會 政治會議에서 하는대로 移讓하기로 合議

⑦ 民間人의 송환문제는 UN側이 포로와 同等하게 1:1의 송환을 주장하고 共産側은 포로와는 別個로 송환을 고집하다가 希望에 依한 송환으로 妥協을 보았다.

餘他の 문제는 政治會議로 미루었다.

休戰會談에서의 北韓側의 態度와 立場을 몇가지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共産側이 會談場所로서 元山港에 正박中인 덴마크의 病院船을 拒絶하고 그 代身 開城으로 提議하였다. 開城은 38度線 南方으로 當時에는 接觸戰線에서 10哩나 떨어진 共産軍의 支配下에 位置하고 있다는 것과 北京과 平壤當局의 連絡關係上 交通이 편리하다는 것과 元來 南韓에 屬해 있던 開城에서 UN軍의 休戰交涉團에게 白旗를 掲揚시키고 마치 休戰을 哀乞이나 하는 듯한 印象을 他人에게 주려는데 있었다. 한편 軍事的으로 보아 開城은 西部戰線에서 平壤으로 向하는 軍事上的 攻擊軸에 해당하여 이곳을 회담장소로 定함으로써 UN軍의 軍事行動으로부터 平壤을 保護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兵力을 다른 戰線에 增強시킬 수 있는 可能性에 있는 것이다.

둘째, 共産側은 休戰會談을 政治問題까지 取扱케 하여 政治會談으로 轉換시키려는 立場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一置된 原則이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내놓

은 議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即, 戰爭狀態의 即時停止와 全外國軍隊의 韓國으로부터의 撤收를 主張한 것이다.

이는 北韓側이 1947年 9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主張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關係各國政府에 對한 권고」 문제를 討議함에 있어서 共產側提議는 「모든 外國軍隊의 撤收,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 및 韓國의 平和에 관한 다른 諸問題를 討議하기 위해 休戰後 3個月 以內에 北韓과 中共外에 UN의 會員 諸國이 任命한 雙方 各各 5名의 代表로 구성된 高위 政治合議를 開催한다」라고 提議했는데 이는 北韓과 中共以外에 소련 或은 다른 공산국을 포함하여 공산 측에서 半數以上의 의석을 占하는 12個國 會議開催를 目的한 것 이다. 여기에서 「다른 諸問題」란 도대체 어떠한 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中共의 UN加入 또는 台灣問題를 관련시키려고 한 의도가 아니였는가 생각된다. 즉 政治問題를 取扱케 하는 것이 共產側의 의도였다.

세째, 傷病 포로交換이 休戰協定 合議前에 實行되었다는 것은 共產側이 人道的인 面보다는 會談에서 利得을 얻자는 것이었다.

53年 4月 11日 雙方 合議下에 傷病포로交換協定이 調印되었는데 이에 依해 UN軍側에서 約 500名과 共產側에서 100名씩 送還하자고 決定하였다. 그러나 實際적인 交換은 UN軍側이 6,000名, 共產側은 600名을 交換했다. 이러한 交換이 成立된 것은 北韓側이 傷病포로 交換을 미끼로 삼아 休戰會談의 再開를 企圖하 는데 成功했다. 또한 傷病포로의 交換의 口實로 UN軍側에 의한

空襲도 中止시킨 다음 平壤 - 開城間의 公路로 白旗에 白旗를 달고 多量의 軍需物資를 輸送하는데 成功하였다. 또한 수백명의 새 俘를 받은 포로들을 송환시킴으로서 南韓을 교란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目的이 없었다면 교환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째, 休戰監督의 機能을 擔當하게 될 中立國을 선정하는데서 체코, 파란, 소련을 提議하였는데, 이는 모두 中立國이 아니라 共產國家이며 北韓에 對한 直接 間接的으로 戰爭을 支持하고 있는 나라들인 것이다.

특히 소련은 共產軍에게 모든 軍需品을 供給하여 戰爭을 계속시키고 있고 休戰會談自体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指目했다는 것은 억지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3個國을 主張한 것은 妥結에 있어서는 소련을 양보하고 체코·파란을 확보하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共產側은 休戰을 앞두고 大攻勢作戰을 東部戰線의 韓國軍 正面에 集中하였다. 이는 休戰이 成立될 경우 有利한 地域을 占領하고 全戰線을 38線以南으로 進出케 하여 休戰線을 決定하고 「勝利의 休戰」의 名分을 얻자는데 目的이 있었다.

約 10日間의 攻勢끝에 休戰에 應했는데 對해서, 共產軍의 最終 攻勢의 結果로 非武裝地帶가 設定된 것이다. 이는 會談에서 얻지 못한 것을 物理的으로 획득한 것이다.

3. 제네바政治會議와 軍事停戰委員會

53年 7月 27日 調印된 休戰協定 第 60 條는 休戰協定 發効 3 個月 以內에 韓國으로부터 모든 外國軍의 철수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등의 問題를 가지고 雙方側을 代表하는 高位 政治會議를 開催토 록 되어있다.

1953年 10月 25日부터 政治會議 開催準備을 위해서 豫備會談이 있었 다. 그러나 共產側의 不當한 提議로 豫備會談은 中斷되고 말았다.

1954年初 獨逸 및 오스트리아 統一問題에 關하여 討議하기 위해 伯林에서 會합이 있었는데 미, 영, 불, 소 4 個 國外相은 2月 18日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政治會談은 4月 26日 제네바에서 開催할 것에 合意를 보았다.

이 合意에 따라 제네바會談은 54年 4月 26日에 開催되었으며 同年 6月 15日까지 韓國問題를 取扱하였다. 이 會談은 엄밀한 의미에 서는 休戰協定 60條에 근거한 政治會議는 아닌 것이다. 豫備會談 이 一旦 決裂되고 變形된 政治會議라고 볼 수 있다.

同會議에는 UN側으로 韓國, 호주, 白耳義, 캐나다, 콜롬비아, 에치오피아, 仏, 希臘, 룩셈부르크, 和蘭, 新西蘭, 比律賓, 泰國, 土耳其, 英國, 美國 등 15 個 國이고 南阿는 招請에 不応했다. 共產側는 中共 北韓 소련 등이었다.

同會議는 韓國代表團의 發言으로 始作되어 機先를 잡았으며 卞榮泰 代表는 우선 中共軍이 철수하고 北韓에서만 UN監視下에 선거할 것을

主張했다. 卞代表의 發言에 이어 北韓側의 南日이 發言했는데

① 全韓委員會를 組織하고 선거法을 作成하고 南北의 互대發展을 위한 措置장구 ② 6個月內에 外軍철수 ③ 有隣國家의 平和保障 등의 內容이었다. 여기에서 全韓委員會構成을 南日은 南과 北의 比率을 同等하게 1 : 1로 하자고 했다 한다.

이러한 雙方間의 見解差는 合意도 보지 못하고 修正案들을 各各 發表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韓國側은 5月 22日 14個條項의 政府案을 提示하였는데

- ① 6個月以內에 南北韓에서 大韓民國 憲法節次에 依해 선거할것
- ② UN 監視下에 國勢調査實施
- ③ UN 監視員 및 立候補者의 自由活動 保障
- ④ 선거日 1個月 前까지 中共軍 完全撤収
- ⑤ 統一政府가 完成된 후 UN 軍 철수를 開始한다.

北韓 南日의 修正案은 6月 15日 提案되었는데

- ① 雙方은 合意되는 期日內에 그 兵力을 各各 比例數를 基準으로 撤退시킨다.
- ② 南北韓은 1年以內에 그 兵力을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감축
- ③ 「全韓國委員會」를 組織하여 접근할 수 있는 環境造成
- ④ 南北韓代表로써 戰時體制를 平和體制로 轉換하는 문제 檢討
- ⑤ 제네바會議 參加國은 韓國의 平和的 發展保障의 必要性 認定 등이었다.

이러한 相反되는 主張이 合致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것이며 2個月간의 政治會議에서는 아무런 成果가 없었다.

따라서 參戰 16 個國은 「統一獨立 民主~~制~~ 國樹立을 目的한 國會議員을 選出하기 위하여는 真正한 自由선거를 UN 監視下에 實施하여야 하며 議員數는 各地域 原住民의 人口比例로 한다」는 共同宣言을 發表하였다. 以後 韓國問題는 自動的으로 UN 例에 복귀되었다.

이상의 제네바 政治協商은 韓國統一問題에 있어서 UN 으로 부터 떠어 내려는 것과 外軍撤収를 前提로 하는 北韓側 立場 때문에 決裂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主張은 47 年末부터 내놓은 것들이다.

특히 「全韓委員會」를 構成한다는 것은 北韓의 地位를 南韓과 同等하게 하기 위한 1:1의 主張이며 감군 또는 平和 等等의 主張은 北韓의 戰後복구 「革命基地化」를 하자면 一定한 期間의 平和維持가 必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네바 滯留期間中 北韓側은 많은 隨行員을 帶同하고 高級 호텔을 賃賃로 投宿하는 등 호화로운 生活을 했다는 바 이는 戰爭으로 因해 困難한 内部 形便과는 매우 對照的인 現象이다.

以上 同會議參加國들에 對한 一種의 官能的인 示威라고 볼 수 있다. 매일밤 파티를 열고 參加國의 매수工作~~의~~ 치열했다는 것은 그들의 常例的인 協商手法인 것이다.

休戰協定이 發効된 후부터 軍事停戰委員會가 協定の 實行문제를 討議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休戰後 오늘날까지 本會議와 秘書長會議가 必要에 따라 開催되고 있다.

北韓側은 軍事停戰委員會의 機能을 濫用하여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고 있으며 마치 政治協商機構와도 같이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休戰協定 第 24 條에도 軍事停戰委員會의 職責과 權限에 對해서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任務는 本停戰協定の 實施를 監督하며 本停戰協定の 어떠한 違反事件이든지 協議하여 處理하는 것이다」라고 休戰協定違反行爲에 對한 감독과 協議를 위한 것에 限定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러한 規定에는 아랑곳없이 政治目的에만 利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統計的 事實로서 如實히 立證되는 것이다.

即 1969年 4月 18日 記在統計에 依하면 本會議의 開催總數는 都合 290 次에 達하고 있는데 그中 北韓側의 政治的 性質을 띠우는 提案 또는 發言이 38 回로서 11.5%에 이르고 있으며, 韓國과 美國에 對한 辱罵와 비난등 政治的인 惡宣傳을 한 것은 122 回 37%에 해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政治發言은 休戰後부터 점차 上昇하는 性向을 보이고 있으며 4.19, 5.16 과 같은 政治的 混亂期와 또한 韓國에서 經濟成長과 5 個年計劃이 成功하는 시기에 들어와서는 平均 90%로 占하고 있다.

近來에 와서는 100% 政治宣傳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다음의 表는 參~~參~~代表別로 分析한 것이다.

代表名	期 間	政治問題 提 案	惡宣傳과 威 脅	計
이 상 군	53. 7.27 - 55. 7.18	7 回	1 回	8 回
정 국 록	55. 7.19 - 58. 1.28	3 "	0 "	3 "
장 상 호	58. 1.29 - 59. 4.16	7 "	3 "	10 "
주 창 준	59. 4.17 - 61. 3.20	8 "	20 "	25 "
장 정 환	61. 3.21 - 64. 9.20	4 "	18 "	22 "
박 중 국	64. 9.21 - 69. 2.18	6 "	74 "	80 "

休戰後 北韓側의 協定違反行爲는 부지기 數이다. 京元線, 京義線 鐵道 爆破事件, 靑瓦台襲擊과 三陟, 蔚津地區의 武裝共匪 浸透事件, 美軍士兵幕舍爆破事件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北韓側은 軍事停戰委員會의 會議席上에서는 이를 모두 否認하고 있다. 三陟地區에 南派한 武裝共匪에 對해서 「南朝鮮革命 家들의 反美 愛國鬭爭」이라고 282次 本會議에서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軍事停戰委員會는 北韓側의 역지와 常識에 벗어나는 主張으로 운영되어 왔다.

北韓側에서 休戰協定違反을 承認한 것은 現在까지 2件밖에 없다. 그나마 休戰協定이 맺어진 그해 즉 1953年 8月 6日과 同年 11月 6日 두件밖에는 없다. 이와는 反對로 北韓側은 UN側의 休戰協定違反이 1967年 12月 22日 記在 52,0273件 이라고 터무니 없는 主張을 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側과는 對照的으로 UN軍側은 사소한 違反事實이 있다면 그

대로 是認하는 態度로 나오고 있다. 北韓側은 休戰協定을 자기들의 政治目的으로 利用하려 하고 있으며 必要하다면 何時라도 軍事停戰委員會의 기능을 무시하고 軍事挑發을 하려하는 것은 自명한 일이라 하겠다. 反美宣傳과 美軍撤収主張을 하는 政治會議로 삼고 있다.

4. 平和統一攻勢와 協商提議의 意圖

54年 제네바政治會談이 決裂된 후 北韓에서는 계속해서 平和統一方案을 提示하면서 南北協商을 들고 나왔다. 이는 1956年 4월에 開催된 勞動黨 3次大會를 계기로 더욱 活潑해졌다.

同大會에서 提議된 平和統一方案과 協商內容을 보면 「南北政黨 社會團體連席會議」召集을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連席會議를 開催해서 첫째, 平和統一의 共通한 目的下에서 南北의 各 政黨과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의 聯合을 實現하고 둘째, 南北의 統一戰線을 結成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南北聯合政府樹立을 目標한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우선 「常設委員會」를 構成하고 南北間에 政治, 經濟, 文化등 多方面的인 接觸과 交流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常設委員會는 南北에서 同等한 比例로 政府, 立法機關,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과 無소속 人士들이 參加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밖에 平和的 統一問題解決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과 南北朝鮮政府 代表가 參加하는 國際會議를 召集하여 平和統一의 條件造成을 해야

한다고 提議하고 있는데 이러한 南北協商 常設委員會構成, 有関国 中心國際會議 召集등은 當時 与件으로 보아서는 全然 不可能한 문제인 것이었다. 특히 3年間の 戰爭으로 因한 南北間의 敵對感情의 高潮와 UN 決議에 依해서 UN 軍이 韓國戰爭에 參加했고 休戰成立이 된 지 不過 얼마되지 않는 狀況에서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의 連席會議 또는 UN을 無視한 有関國家會議 등은 터무니 없는 주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主張을 한 北韓의 底意는 우선 戰爭 피해를 早速히 복구하고 北韓 勞動黨 第6次 全員會議(53.8)에서 決定한 「軍事的 民主基地」인 北韓을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強化하기 위해서 平和期를 얻기 위한 戰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當時 國際적으로도 名分이 서는 平和統一問題를 裏面에 내세운 것이다.

當時 北韓에서 主張하는 平和統一과 協商提議의 基本적의에 對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실이 證明해주고 있다. 平和統一과 南北協商을 提唱한 3次大會에서는 勞動黨 規約을 採択하였는데 同規約 서문에 革命의 性格을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이라고 규정하고 當의 當 面目的은 南韓을 共產化하고 全韓半島를 共產主義社會로 建設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平和統一方案이 어디까지나 政治的宣傳에 不過하다는 것을 立証해 주었다. 또한 58年 4月 29日 「全國司法 檢察員會議」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은 「南半部에서는 지금 反帝, 反封建, 民主革命課業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는 아직 社會주의 革命課業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서는 南半部에서 社會主義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만 統一戰線을 할 것이 아니라 美帝와 이승만을 反對하는 모든 人士들과 社會단체 등과도 統一戰線을 해야한다. 우리가 오늘 南半部人民들과 統一戰線을 하는 것은 社會主義革命을 그만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目的한 社會主義건설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것이다.」라고 統一戰線의 基本目的을 밝히고 있다.

南北間 代表가 參加하는 有關國家의 國際會議召集問題는 한마디로 말해서 UN에서의 韓國問題討議를 배제하려는데 그 底意가 있었다. 또한 UN에 依하여 合法的으로 수립된 韓國의 地位를 格下시키고 北韓과 同等한 地位로 끌어 내리려고 하는 術策인 것이다.

韓國問題를 UN 밖으로 導出시키자는 속셈은 이미 休戰後 開催되었던 第6次 全員會議에서 밝힌 바 있다. 즉 제네바 정치회담을 앞두고 金日成은 말하기를 제네바회의에 參加하는 目的은 韓國問題 討議를 UN에서 분리시키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立場이 戰爭挑發의 張本人이므로 UN 내에서 韓國問題가 論議된다면 매우 不利하다는 것을 고려한 나머지 有關國家 또는 中立國監視들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年 4月 南韓에서의 學生革命은 北韓側으로서는 豫치 못했던 돌발사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무적인 사태기도 했다.

李承晩政權만 천복되면 쉽게 공산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李承晩大統領이 下野할 것을 성명한 4月 26日의 다음날인 4月 27日 성급히 「南朝鮮에서 造成된 현사태와 關聯한 계정당 社会단체 지도자들의 연석회의」라는 것을 소집하고 성명서를 發表했다.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南韓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 철퇴
- ② 南北韓정당, 社会团体연석회의 開催
- ③ 南北來往實現
- ④ 南北聯合經濟委員會 構成
- ⑤ 外勢干涉 없이 自由로운 南北選舉 등이 다.

이상의 제안 內容은 지금까지 北韓에서 주장해온 統一제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종래에 主張해온 有関國家會議 召集이나 中立國監視 등이 빠져 있는 점이다. 또한 南北계정당 社会단체의 연석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을 強調했다는 것은 南韓의 統合을 이루고 있지 못한 계정당들과 協商함으로서 一方的으로 그들의 의사를 貫徹시키고 쉽게 南韓을 吸收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밖에 同聲明書에는 南韓의 政治적인 混亂과 空白을 利用하여 臨時 쓰베에트를 組織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우리도 南朝鮮 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동자 농민, 청

년, 학생, 과학자, 문화인, 병사, 기업가 상인 대표³ 臨時 行政機構
 가 지체없이 成立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이 행정기구는 南朝鮮
 에서 임시로 行政權을 行使하여야 한다. 또한 현 南朝鮮 경찰은
 즉시 해산하고 人民警察을 組織하여 치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고 하였다. 이는 쏘베토 政權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4. 19 革命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 종래의 위장된 平
 和統一方案과는 달리 다시 混亂을 틈타 그들이 目的한 共產統一을
 一舉에 달성하고자 一方的인 對南呼訴를 했다.

60年 7月 29日 平和의이녀 민주적인 총선거에 依해 第2 共和
 國이 수립되자 北韓의 態度는 또다시 달라졌다. 즉 聯邦制案을
 들고 나왔다.

60年 8月 15日 경축대회 연석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統
 一提案을 하였다.

- ① 外勢干涉 없이 自由로운 南北統一選舉實施
- ② 過度的 措置로서 南北韓聯邦制實施
- ③ 南北經濟委員會組織
- ④ 文化, 예술, 체육등의 交流
- ⑤ 美軍撤収와 南北韓軍隊감축 (108種)
- ⑥ 이상 問題를 協議키 위해 南北韓 代表會談 開催 등이다.

金日成이가 제안한 聯邦制는 첫째, 南北韓의 현 政權체제는 그대

로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둘째, 双方政權代表로서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고 경제, 문화 교류등 民族共同關心사를 협의하며 對外的으로 統一行動이 必要한 事項을 協議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主張을 한 속셈은 여러가지 있으나 우선 南北으로 갈린 채 1대1의 地位를 確保하자는 것이며 統一戰線정책의 一種의 類型으로서 上部統一을 해서 下部(群衆)을 爭取하자는 것이다. 또한 聯邦制라는 名目으로 對外運動을 하는만큼 美軍撤収와 UN에서의 韓國問題討議를 못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1962年 12月 党中央全員會議를 계기로 4大軍事路線에 立脚한 戰爭準備를 다구치는 시기에 있어서는 平和統一方案 보다는 「南朝鮮革命」論을 提唱하였다.

即 南韓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하고 「人民政權」이 수립되면 그 政權과 合作하여 統一을 한다는 主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從前과 같은 聯邦制 統一方案 제시는 없었다.

그러나 UN 總會때마다 備忘錄을 發表하여 美軍撤収,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開催 有関國家會議등을 主張하였으며 韓國問題를 UN 밖으로 끌어 내리는 努力을 계속했다.

戰爭準備期間에는 한때 交流問題를 提議한바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非政治的 部門이었다. 即 1966年 5月부터 8月期間에 文化人 記者

및 科学者交流 등 總 21 件의 提議를 해왔다. 交流內容은 京平 對抗 氷上競技大會開催, 南北共同映画製作, 科学文化交流, 書信交流, 京平水泳大會開催, 記者交流, 共同芸術祝典開催, 南北學生觀光交流 共同美術展覽會開催, 海洋共同研究 등이다.

1970 年代 들어서면서 國際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便乘하여 다시 平和統一攻勢와 南北協商提議를 主張하기 始作하여 71年 4月 所謂 8 個項의 統一方案으로 나타났다.

三. 最近 南北韓協商에 있어서의 北韓側 전략과 協商테크닉

1. 南北赤十字會談에서의 협상기교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으로 離散된 1천만 家族 찾기 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人道的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한데 對하여 8月 14日 北韓赤十字 中央委員會가 이를 受諾함으로써 國土分斷 26年 만에 처음으로 南北對話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大韓赤十字社와 北赤간에 雙方의 意思를 文書로서 確認하기 爲해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5次에 걸쳐 文書交換을 爲한 派遣員 接觸이 있었고, 文書交換에 依해 雙方間에 合意된 事項에 의거하여 1971年 9月 20日 같은 場所에서 歷史的인 第1次 南北赤十字豫備會談이 開催되었던 것이다.

第2次 豫備會談에서는 豫備會談 討議 議題 및 順位를 定하였고 第3次 豫備會談에서는 本會談 場所를 서울과 平壤으로 合意하였으며 第6次會談 以後 討議되어온 本會談 議題 問題는 第17次 豫備會談 때에 議題 妥結을 爲한 雙方 修正案이 提案되어 原則的인 意見 接近이 이루어져 雙方은 19次 會談時 本會談 議題 文案 整理를 爲한 實務者會議 開催에 合意한 後 13次에 걸쳐 非公開 實務會議에서 本會談 議題를 確定하고 20次 豫備會談에서 合意文書를 交換하였던 것이다.

22次 豫備會談에선 諮門委員 構成에 「政府 最高人民會議 政黨 社會團體의 人士」를 網羅하자고 提議함으로써 赤十字會談에 政治性

을 賦与하려는 本来의 目的을 다시금 露呈시켰고 23次 豫備會談時
는 南北의 諸政黨 社會團體 代表를 招請하자고 提議하여 豫備會談
妥結에 새로운 難關을 造成하려고 企圖하였다.

또한 3次의 實務會談에서 政黨 社會團體 代表를 共同招請 연설
케 하자는 것을 各己 招請으로 하라고 提議하므로써 赤十字會談에
政治性을 賦与하려고 試圖하였던 것이다. 25次 豫備會談에는 北赤
은 本會談 代表團과 諮問委員에 各 政黨 社會團體 代表와 朝總聯
代表로 포함된 것이라고 強調하여 그들이 企圖해온 「本會談의 政
治性 賦与」를 再 浮刻시키려 했다.

이러한 北韓側의 企圖에도 不拘하고 25次의 豫備會談에서 本會談
節次와 더불어 會談日時가 最終적으로 合意되어 南北赤會談은 本格
的인 會談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歷史的인 第1次 本會談이 平壤에
서 開催되어 本會談에서 北赤은 「8.6 演說을 契機로 南北赤 豫
備會談이 마련」되었으며 「南北赤會談은 主体思想의 勝利」라는 等
始終一貫 政治演說로만 이끌어 감으로써 議題의 實質的 討議를 回
避하고 赤十字會談의 人道主義的 事業性格을 格下시키려 했던 것이
다. 또한 서울에서 開催된 第2次 本會談에서도 北赤은 「民族問題
를 떠난 人道主義란 있을 수 없다」는 北赤 基本態度를 力說하면서
各種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의 參與를 促求하였다.

한편 72年 10月 24日 平壤에서 開催된 第3次 本會談에서 北赤이
明白히 赤十字事業의 領域에 屬할 수 없는 「南韓에서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 環境改善」의 先決을 主張하고 나서므로써 그 以後 6

次 本會談에 이르기까지 會談은 하되 進行은 안되는 停頓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南北赤會談은 本來부터 人道主義精神과 同胞愛에 입각, 離散된 「家族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어 알리고」 이들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相逢을 實現」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음에도 北赤은 이러한 人道主義에 依한 南北赤會談을 처음부터 그네들의 對南赤化戰略의 一環으로 誘導함으로써 崇高한 人道主義的 會談을 다음과 같은 諸問題로 誘導하고 있다.

(1) 會談에 臨하는 北赤의 基本戰略

北韓의 南北赤會談에 對한 基本戰略은 始終 人道的 赤十字會談이라는 表面上 口實을 내세우면서 裏面的으로는 統一戰略의 一環으로 이를 推進하고 있음을 判斷할 수 있다. 全會談期間을 通하여 戰略의 一環으로서 浮刻시킨 것은

① 過去 北韓이 主張한 平和統一提案을 同會談에서 間接적으로 強調하고 있는 點인바 이는 南北赤會談의 成立自体가 韓國內部の 平和統一氣運이 成熟 高潮되어 韓國이 이에 屬할 수 밖에 없었다는 判斷下에 平和統一論議를 強調함으로써 韓國內部の 統一論議를 高潮시킬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一貫된 主張이 正當했음을 誇示하려는데 비롯된 것으로서 結果적으로 統一論議 高潮는 對北韓觀을 修正시켜 反共的인 國論을 分裂시키고 北韓에 呼應하는 平和統一 論議勢力을 増大시킬 것을 策動하고 있는 것이다.

② 會談 自体를 「民族内部問題」로 規定하고 그들은 南朝鮮 解放의 最大障礙가 外部勢力(駐韓美軍: 유엔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南北間은 작은 問題로부터 統一問題에 이르기까지를 自主적으로 解結할 수 있다는 것을 誇示함으로써 韓·美·日 關係를 阻止하고 국제적 調整의 契機를 造成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③ 會談의 性格을 人道主義的 問題에 局限시키지 않고 政治的 會談으로 誘導시키려고 圖策하고 있는 點이다.

北赤은 非政治的 對話는 政治的 對話로 그리고 低次元의 對話는 高次元의 對話로 接近發展시킴으로써 統一問題에 歸結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本會談에서의 人的構成에 總裁를 包含시킬 것을 피하는 戰略을 遂行했던 것이다.

④ 北赤은 呼稱問題를 내세워 그들 政權의 合法化를 피하고 있는데 이는 北韓 現政權을 既定事實化하여 統一問題 協商 및 유엔에서의 同等資格 參與를 爲한 合理的 根拠를 마련하기에 努力하고 있다.

⑤ 會談進行에서는 責任轉嫁와 大대의인 政治宣傳을 行하고 있다는 點인데 北赤은 會談의 成功을 爲해 그들 政府의 적극 支援下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는 點을 對内外에 認識시키기 爲해 大대의인 宣傳을 行하면서 유연성있게 會談에 臨하고 會談議題의 未合意點에 對해서는 韓赤側에 責任을 轉嫁시키려는 態度를 堅持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會談進行上에서 會談을 北赤이 主導하고 있는 듯이 誇示하고 있다.

⑥ 韓國政府와 國民間에 「갭」의 幅을 넓히려 企圖하고 있는 點인바 北赤은 現韓國執權層이 赤十字會談으로 韓國內部에 澎湃되어 있는 統一氣運을 強壓 妨害하고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韓國民의 對政府 不信度를 漸高시킬려고 努力하고 있음을 볼 때 北韓은 崇高한 人道主義精神에 입각한 南北赤會談을 그들이 目標로 하고 있는 對南赤化戰略의 一環으로 利用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1) 會談에 臨하는 基本態度

가. 北赤代表團의 人的 構成

南北赤本會談에 이르기 까지는 5次의 豫備接觸과 25次의 豫備會談 및 16次의 實務會談의 어려운 고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넘어 雙方은 순수한 人道主義에 입각한 政治性 없는 人士, 赤十字精神에 투철한 사람으로 各各 7名의 代表 및 7名의 諮問委員을 構成하여 代表團으로써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爲해 努力할 것을 合議했다.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에 있어서 당초 北赤의 提案內容을 보면 21次 豫備會談에서 雙方赤十字團體 責任者를 團長으로 하는 5~7名의 代表로 구성하자고 제의했고, 22次 豫備會談에서는 政府 最高人民會議 政黨 社會團體人士 5~7名으로 構成되는 諮問委員을 帶同하라고 提議하였다. 그러다가 23次會談에서 雙方 正式으로 代表團 7名과 諮問委員 7名式을 帶同케 하는데 合意를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그들 代表團의 人的 구성을 살펴보면 赤十字代表團과 諮問委員 大多數가 赤十字社에 종사한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적어도

労働党의 重要한 職에 있는 中堅 幹部들로서 党組織部와 對南工作
部署인 連絡部, 文化部, 調査部 및 宣傳煽動部, 對外事業部에서 종사
한 자들인 것이다.

團長 金泰福는 党慈江道委員會 副委員長과 外部副相 및 루마니아
주재 北韓大使를 지낸 者이며, 副團長 朱昌俊은 對外文化連絡委員會
副委員長 党宣傳煽動部 副部長, 軍停委 北韓側 首席代表 등을 지낸
党的 高級간부 이며, 諮問委員의 尹基福 같은 者는 行政府의 教育
相 財政相, 計劃委員長, 党中央委 科学教育部長(現) 등을 지내고
있는 共産党的 골수분자로 지난 72年 12月 北韓의 새 憲法을 改
正하는데 핵심적인 役割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 會談에서의 政治性 強調 發言

北韓은 南北赤會談이 「民族問題를 떠난 人道主義란 있을
수 없다」는 그들의 基本的인 態度를 力說하고 「民族分裂의 源泉
的 苦痛을 解決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서의 人道主義精神을 具
現하는 가장 崇高한 길」임을 強調하면서 會談의 政治的 波及效果
를 極大化하고 있다.

그들은 「金日成의 8.6 演說을 契機로 南北赤 豫備會談이 마련」
되었으며 南北赤會談은 主体思想의 勝利」라는 등 會談을 政治的인
것으로만 이끌어 갈려고 劃策 25次의 豫備會談이 進行되는 동안만
도 무려 232次의 政治性 있는 發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그네들은 韓國의 「關係當局 및 政党 社会团体들의
協助와 各界 各層의 支持를 받기 위하여 積極的이고도 능동적인 입

장을 제시함으로써 南北赤會談을 利用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間의 多角
的 接觸을 企圖하고 있음을 露骨化하였다.

또한 赤十字精神이 志向해야 할 最高의 人道主義는 祖國統一」이며
「祖國統一의 三大原則은 金日成이 唱導」했다는 主張을 南韓의 各界
各層에게 理解시키고 이를 普及 深化시키려고 努力했다. 赤十字事業이
祖國統一을 爲한 一邊事業이라면 마땅히 거족적 事業으로 되어야 한
다는 各分을 내세워 各種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의 參與를 促求하고
自由社會의 虛點인 各界各層의 多樣한 意見分裂을 助張하려 策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自由社會가 갖는 開放的 構造를 「事大主義에 물들
었다」고 非難하고 우리 社會内部의 多元的 구조에 階級意識을 鼓吹하
는 同時에 民族主体性和 外勢排斥의 感情을 誘發시킴으로써 内部分裂
을 피하려는데 注力했고 「不平不滿을 갖는 모든 階層과 人民大衆은
우리편」이라는 基本前提를 立証키 爲해 歡迎群衆 또는 好奇心으로
나온 群衆에게 먼저 拍手를 淸하고 誘導하거나 自己들이 바로 「統
一의 旗手이며 同胞愛의 化身」임을 假裝하려는 能動的 姿勢를 誇示
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第2次 南北赤 本會談에서의 北赤側 諮問委員인 尹基福과 金炳植
의 演說에서 引用된 政治的 發言을 正當한 것으로 規定하고 이는
南北共同聲明에 基礎한 것이며 人道的인 問題는 統一問題와 分離될
수 없다는 解釈下에 統一問題를 問題視하는 그 自体에 政治的 底意
가 內包되어 있다는 態度로 堅持하고 있다.

그네들은 모든 對話에 있어서 金日成 主体思想과 統一을 앞세우는 政治的 發言을 宣傳的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상투적인 政治發言은 赤十字原則에 明示된 赤十字運動의 獨立性和 政治的 中立性을 正面으로 유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會談 主導權 發言

北赤은 「지금에 와서 우리의 이 끊어 넘치는 同胞愛와 人道主義的인 提議의 一部를 貴赤十字社가 받아들여 나라와 民族의 分裂로 因한 苦痛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事業에 뛰어드는 勇斷을 내린데 對하여 우리는 熱烈히 歡迎」하며 「本會談의 成果的 進行을 円滑히 保障하기 위해 板門店에 會議을 할 수 있는 칩을 빠른 시일내에 짓겠으며 南北間에 直通電話를 놓게된 것은 우리側의 提議에 의해 開通」되었고 「南北赤會談의 本會談場所를 板門店 平壤 서울로 하자는 당신들의 意見은 우리의 제의를 늦게나마 同意한 것으로서 多幸한 일로 생각한다」라는 等 마치 南北赤會談이 北 韓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金日成의 8.6 演說을 契機로 南北赤 豫備會談이 마련되었으며」 「南北赤會談은 金日成 主体思想의 勝利이며 自主 平和的 統一方針의 勝利」라는 等 會談의 主導權을 誇示하려는데 注力했던 것이다.

라. 北赤의 責任轉嫁 發言

北赤은 25次의 豫備會談期間 100余차례의 大韓赤十字社則에 責任轉嫁 發言을 함으로써 會談지연문제에 대한 責任問題를 우리

측에 轉嫁시키는 술책을 지행하고 있다.

그 实例로서 「왜 우리가 提起한 우리가 合意한 議程에 對해서 討議하는 것을 回避하는가」(4次豫) 「우리측의 제안과 모든 立場이 그 누구에게나 接受될 수 있는 公明正大함에도 每會議마다 時刻을 끌게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당신측은 豫備會談 첫날부터 이 本質的인 問題를 가지고 時間을 끌게 했고 每豫備會談의 날짜를 設定함에 있어서도 매번 우리측의 誠意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측의 全般的 提案에 對해서도 아무런 答辨을 주지않고 있다」(4次豫)는 마치 南北赤會談이 우리측에 의해 答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誤導하고 있는 것이다.

그네들은 17次豫備會談에서 「自由로운 來往에서 -自由로운 訪問」으로 양보된 새로운 修正案을 提示, 議題妥結 努力을 誇示하면서 責任轉嫁로 一貫된 宣傳攻勢로 나왔는데 그것은 北赤측의 다음과 같은 責任轉嫁 發言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즉 「귀측은 의제 문제토의에서 뒤늦게 그것도 不合理한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완강하게 고집함으로써 會談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귀측은 우리측의 이러한 正當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측의 일방적인 고립으로 會談은 膠着狀態에서 지금 踏歩하고 있다. ...」

또한 그네들은 72年10月 平壤에서 開催된 第3次本會談에서 北赤則이 赤十字事業의 領域에 屬할 수 없는 「南韓에서의 法律的 社会的條件 環境改善」의 先決을 主張하고 나서므로써 그 後로는

會談은 사실상 담보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우리측의 분위기 조성 및 여건이 南北赤會談을 妨害하고 있다고 그 責任을 우리측에 轉嫁시키고 있다.

(3) 北赤代表團의 一般動向

第2次南北赤會談에 參加하기 위해 北赤代表團一行은 板門店을 넘으면서부터 그들이 投宿한 「타워호텔」이 反共團體와 관련된 建築物이니 投宿할 수 없다고 제스츄어를 쓰는가 하면 그들이 板門店을 거쳐 서울에 入京하는 동안 그들은 非武裝地帶內에서 美軍基地를 찾아보려고 하였으며 軍事施設에 對해선 반드시 사진을 찍었고 연도에 나온 歡迎群衆들을 보고 이는 조직적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군중들이라고 표현하면서 所謂 그들이 말하는 統一念願의 氣運이 南韓에서 끊어 넘치는 것으로 評價하고 서울市內 高層建築物에 對하여서는 意識적으로 無視하는 態度로 一貫했고 自己들의 行動에 對해서는 전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 대표단 요원에 대한 행동은 自體內에서 強力한 規制로 統制하여 個人行動을 철저히 制限하고 있다.

또한 우리측의 안내원과의 接觸은 回避하고 質問을 받았을 때 "모르겠다"는 것으로 답을 回避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宿所의 各房에 金日成 肖像畵와 金日成全集을 陳列해 둠으로써 金日成을 中心으로 團結된 모습을 誇示하고 金日成을 우리들에게 宣傳하려고 圖策하고 自體內的 精神적弛緩을 막기 위해 小組로 편성 기획있을 때마다 思想教育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들은 버스를 타면 버스內 설치된 음악을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음악은 頹廢的이며 落後的이라고 批判케 하면서 錄音器에 수록된 自己들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모든 對話에 있어서는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統一을 앞세우는 政治的 發言을 宣伝的으로 일삼으면서 公演이나 宴會에 參席時는 그 內容이 革命的 姿勢에 反하여 頹廢的이라고 批判하고 祖國의 固有한 藝術이 抹殺되어 간다면서 오직 自己들만이 民族藝術을 살려가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리고 自由社會의 開放的인 구조를 事大主義로 몰며 自由社會의 多元的 구조를 階級意識으로 論駁하면서 共產主義 理論을 展開시켜 보려는 宣伝술책을 사용했고 우리의 發展相을 內的으로 是認하면서도 表面上 이를 否認하려 애썼다.

會談後 市民의 態度가 冷淡해지자 北赤代表團은 行動과 言辭도 매우 조심성 있게 하였으며 自由社會體制는 富益富 貧益貧의 社會라는 것을 自己들에게 教育시키면서 會談기간중 그에 대해 立証할 수 있는 證據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들은 韓國社會의 賃金制度에 대하여 代表團 全員이 깊은 關心을 갖고 探知하려 했는데 主로 그 대상을 低所得層인 者들에게 焦點을 두었다.

서울에 체류해 있는 동안 北赤代表團 全員에게 韓國의 全景을 種類別로 分担시켜 사진을 찍도록 조직편성되어 있었고 각자는 자기가 맡은 대상의 사진촬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뚜렷히 나타났던 것이

다. 宴會參席時에도 그들은 韓國의 著名人士들을 把握하려는 底意
가 分明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 北韓側의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에서 능히 모든 것을 볼수
있듯이 우리대표단이 平壤을 訪問時에는 철저한 감시로서 代表團의
活動에 制限을 加했으며 우리代表團을 歡迎하는 北韓住民들의 態度
는 完全한 統制와 指令下에 行動하는 印象이 뚜렷하였다.

그들은 北韓 全住民에 對한 철저한 「金日成 主体思想」의 注入
으로 赤十字會談을 통한 對北自由化 努力을 最大한 防止하기 위하여
一切의 北韓住民에 對한 接觸기회를 封鎖 乃至 遮斷하고 있었다.

(4) 會談을 통한 海外宣傳活動

北韓은 海外公館을 總動員 記者會見 等を 通하여 南北赤會談이
그들의 主導下에 이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北赤 提案의 正當性을
宣傳하는 한편 每月 豫備會談 進行狀況과 本會談 進行狀況을 書翰
形式으로 各國 赤十字社에 通報함으로써 南北赤會談의 進行狀況을 歪
曲하고 있으며 또한 各國 左傾人士들을 使喚하여 世界輿論을 誤導
하기에 總力を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北韓側의 이러한 宣傳活動은 南北赤會談에 對한 主導權을 對外的
으로 誇示하는 한편 會談內容을 我田引水格으로 宣傳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들은 南北赤十字會談에 對한 各國反應 자료를 我田引水格으로 解
釈 宣傳에 利用하고 있으며 특히 韓國의 內部問題를 西方輿論에 歪曲
例示하여 韓國의 態度를 欺瞞的이라고 非難하고 그들의 平和統一 方

案의 正當性을 誇示하는 한편 이를 對內外 宣傳活動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2. 南北調節委員會와 協商運營의 方向과 技巧

南北의 要人들이 서울과 平壤을 相互 訪問하면서 秘密政治協商을 벌인 끝에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1次會議가 72年 10月 12日 板門店 自由의 집에서 非公開로 開催되었다.

同會議에는 韓國側에서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北韓側에선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을 代理한 朴成哲 政務院 副總理가 參席하여 雙方間의 中傷 誹謗問題와 2-3次會議 開催問題를 論議하였으며 72年 11月 2日~4日까지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는 南北關係의 改善 및 긴장완화 등의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과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에 關係 合意를 보았는데 그 機能에 있어 自主 平和統一問題 協議決定,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人士의 交流 經濟, 文化 社會的 交流과 協力 緊張緩和와 軍事衝突防止 및 軍事對峙解消 그리고 對外活動에서 共同步調 및 單一民族 肯持宣揚을 爲해 雙方이 合意를 보았고 南北調節委員會 構成에 있어서는 共同委員長 副委員長 各1名 委員2名 幹事委員1名 等 5名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長, 次官級으로 하도록 했으며 幹事會議는 幹事委員과 幹事 各 2名으로 열도록 하고 分科委員會는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等의

分科委員會를 調節委員會의 事業進行에 따라 設置토록 했다.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의 運營은 2個月~3個月에 1回式 서울 平壤에서 各各 輪番制로 開催토록 하고 幹事會議은 月1回 板門店에서 열기로 合意를 보았다.

또한 이 會議에서는 72年.11月10日 零時를 期하여 對南 및 對北放送과 軍事分界線上에서의 拡声器에 의한 對南 對北放送, 相對方 地域에 대한 宣傳띠라 撤布를 中止하기로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第2次 會議에서 合意를 보았다.

한편 72年11月30日부터 南北調節委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가 서울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會議에서 調節委員會의 正式구성을 하게 되었다. 韓國側에서는 共同委員長에 李厚洛, 副委員長에 張基榮 委員에 崔圭夏 康仁德, 幹事委員에 鄭洪鎮 등을 北韓側에서는 共同委員長 金英柱 勞動党中央會 組織指導部長, 副委員長에 柳章植 勞動党中央委 組織指導部 副部長兼 對外事業部長, 委員에 李完基 內閣參事와 韓雄植 勞動党中央委 政治委員會 直屬責任指導員, 幹事に 金德賢 등으로 구성 하여 72年12月1日 서울 迎賓館에서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會議가 開催되었다.

이 會議에서 南北雙方은 「南北關係의 改善은 雙方間의 理解와 信賴의 基盤을 造成하는 것이 要請되며 그러기 爲해서는 解決이 容易한 問題부터 解決하여 그 実績을 蓄積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原則을 事實上 諒解했으며 이에 따라 우선 經濟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模索한다는데 意見을 모우고 이를 爲한 經濟分科委員會를

于先 設置한다는데 事實上 合意를 보았으며 그 外에 幹事會議의 早速構成, 共同事務局의 早速設置, 調節委員會의 運營細則의 早速作成 等도 合意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73年3月15日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에서 韓國側은 經濟 文化分科委員會의 設置와 調節委員會 幹事 會議 共同事務局 運營細則 採択 및 共同事務局建物(板門店)의 共同 建築 等を 提案하였던 것이며 또한 南北調節委員會 구성과 운영 에 관한 合意書에 의거한 경제와 文化分科委員會가 設置되면 同分 科委員會에서 經濟人間의 幅넓은 交流와 広範한 物資交流 그리고 特定部門에서의 合同開發 및 合同作業, 芸術團體의 상호 교환 초청 및 都市巡廻公演, 學術體育團體間의 幅넓은 交流, 社會團體間의 多角 的 接觸과 交流를 實施하는 問題등을 協議 決定토록 하자는 具體 的이고도 現實的인 實踐方案도 아울러 例示 提議했던 것이다. 이 에 韓國側은 지금의 南北關係가 極端的인 思想과 理念 및 制度의 差異와 6.25의 慘했던 戰禍 그리고 그 뒤에도 繼續된 各種 武力擄奪事件 때문에 相互不信과 誤解가 極度로 深化되어 있어 南 北關係의 本質的인 改善을 爲해서는 理解와 信賴의 恢復이 무엇보다 緊要하여 이를 위해서는 北韓側이 對南暴力革命教唆指命 等 暴 力革命에 의한 赤化企圖를 拋棄해야 된다는 點을 強調했다. 또 南北間 相互間의 理解와 信賴의 恢復은 思想과 理念 및 制度의 磨擦이 比較的 덜한 經濟와 社會 文化分野에서 交流와 協力の 實 績을 蓄積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어느 程度 理解

와 信賴의 분위기가 造成되면 이를 바탕으로 政治와 軍事分野의 問題解決이 可能해질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北韓側은 ①武力增強과 軍備競争의 中止 ②南北 各自의 軍隊의 10萬 以下 減縮 ③外國으로부터 武器와 作戰 裝備 軍需物資導入 中止 ④美軍을 包含한 外國軍의 撤収 ⑤相互 武力不行使를 다짐하는 平和協定採結等 이른바 5個項目的 軍事提案을 내놓는 한편 分科委員會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合意함에 의하면 分科委員會는 事業의 進陟에 따라 設置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 等 5個分科委員會를 同時에 一括的으로 設置하고 아울러 南北 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를 열자는 해묵은 提案을 다시 내놓았다.

北韓側이 내놓은 이러한 軍事問題가 南北對話의 前進과 南北關係 改善의 先決問題라고 強調 이 問題의 解決이 先行되지 않는 한 會談을 進展시킬 수 없다는 立場을 明白히 했으며 分科委員會 設置問題에 있어서도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 一括發足외의 다른 어떤 提案에도 同意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分明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지난 4월 시하누크歡迎 軍중집회에서 한 金日成의 연설에서도 뚜렷이 立証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은 南北赤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를 그네들의 目標인 對南赤化戰略의 一環으로 利用해왔음은 上記 諸事實들을 通하여 明白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高位層人士의 비밀接觸이 72年5월에 始作되어 7.4

南北聲明이 發表, 이에 依거하여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會議가 3 차례 열렸으며 72年 11月 30日 同 3次會議에서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되어 2차의 會議를 가지는 동안 北韓側은 다음과 같은 態度로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에 臨했고 同時에 이 會議를 그들 對南戰略의 一環으로 利用하려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 會議에 臨하는 北韓側 態度

가. 主導權 問題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會議가 열리게 된 것은 金日成이 提示한 祖國統一方針과 그 偉大한 生活力을 다시한번 뚜렷히 보여주는 것이며, 朝鮮사람 自身の 힘으로 民族內部問題를 責任지고 解決하려는 確固한 主体的 立場과 民族的 意志를 内外에 誇示한 것」이라고 하면서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會議가 서울과 平壤에서 열리게 된 것은 「金日成이 提示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方針과 南北사이에 幅넓은 接觸과 協商方針의 偉大한 結實이며 南과 北사이에 이와같은 幅넓은 接觸과 交流의 結實은 오직 金日成이 祖國統一偉業을 主動的으로 促進시키기 爲한 가장 合理的인 方案을 내놓고 그 實現으로 우리人民을 確固히 領導하여 왔기 때문」이라 하면서 「金日成 提案으로 南北의 凍結狀態는 풀리기 시작하였고 統一을 爲한 鬭爭路程에 劃期的인 轉換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7.4 南北共同聲明은 金日成이 提示한 71年 4月 8個平和統一方案과 8.6 金日成 演說 祖國統一의 三大原則이 反映된 것으로서 그네들의 主張이 그

대로 받아들여 졌다고 宣伝하듯이 南北調節委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合意畧도 外勢를 排除한 自主的 平和統一을 해야한다는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勝利이며 이를 採択하게 된 것도 「黨과 共和國」의 노력의 결과라고 合理化시켜 宣伝함으로써 南北調節委를 그들이 主導하고 있는 것처럼 宣伝하고 있다.

나. 責任 轉嫁 問題

- 對南 對北放送 中止 -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72年11月11日부 「相互對南 對北放送 中止」에 對한 北韓의 措置事項은 다음과 같다.

北韓은 約束日보다 아주 앞당긴 72年11月10日4時부로 對南放送을 中止함과 同時에 放送局 및 放送프로를 改編하여 종전의 「朝鮮中央第一放送」을 「中央放送」(對內)으로 「朝鮮中央第二放送」(對南)을 「平壤放送」으로 바꾸고 放送프로 改編內容에 있어서 「朝鮮中央放送」의 「프로」는 改編치 아니하고 「平壤放送」에서는 종전보다 南韓社會相 引用報道의 減少, 美國非難의 增加, 日本非難과 主体思想論調를 계속하고 對南 「프로」는 「맑스 레닌」主義放送 講座와 國軍兵士들을 위한 時間을 中斷했으나 北韓의 「統一革命黨 목소리放送」은 變動없이 계속되고 있다.

北韓은 共同委員長 會議에서 合意한 事項을 正規放送에서는 外形上 遵守하는 態度를 표시하고 있으나 統革黨 放送은 南韓革命勢力的의 自体放送으로 固執하여 이를 中斷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北韓의 對南基本戰略에서 變動할 수 없는 南韓人民에 對한 이른바 民主化 闢

争煽動의 不可避性에 立脚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北韓側은 「南朝鮮側 10日 年後 2時에 對北放送 中斷」이라는 제목하에 「南北朝節委 共同委員長 2次會議에서 南北이 서로 誹謗 中傷하지 말데 대한 南北共同聲明의 條項에 따라 72年 11月 10日 4時로 期하여 對南 對北放送을 그만 두기로 合意하고 그것을 遵行함에 公布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同會議에서 決定한대로 72年 11月 10日 4時로 期하여 對南放送을 그만 두었으나 「南朝鮮側」은 同會議에서 決定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違反해서 72年 11月 10日 오후 2時에야 對北放送을 中斷한 것은 「南朝鮮側」의 이러한 立場과 態度 그러한 行爲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매우 有害로운 行爲라 아니할 수 없으며 南朝鮮當局은 그러한 有害로운 行爲의 後果에 對해서 適當한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側에 그 責任을 轉嫁시키고 있다.

(2) 對話에 臨하는 北韓側 企圖

가. 實質問題討議의 遲延

北韓은 南北의 흩어진 離散家族 및 親戚의 人道的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會談은 72年 10月 24日 平壤에서 開催된 제 3차 會談에서 北赤側이 明白히 赤十字事業의 領域에 屬할 수 없는 「南韓에서의 法律的 社会的 條件 環境改善」의 先決을 主張하고 나옴으로써 그 以後로 會談은 담보상대에 이르고 있을뿐 아니라 南北調節委員會도 그 동안의 會議過程에서 「南北關係는 解決이 容易한

分野에서부터 解決해 나간다」는 發展的인 접근방식에 사실상 諒解가 成立되었음에도 73年3月14日~16까지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 第2次會議에서 平壤側은 이른바 「軍事5個項目」을 提示 「이 문제의 先決없이는 會議을 進전시킬 수 없다」고 나옴으로써 會議의 進展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北韓側의 이러한 赤十字會談에서의 法律的 社会的条件 環境改善論과 調節委員會에서의 軍事5個項目의 先決論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起인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첫째, 會談에 임할 수 있는 對內的 準備가 未備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南北會談에 관련되고 있는 人的 資源의 選拔 및 이들에 대한 教育을 爲해서는 앞으로 많은 기간이 必要하고 南北 交流와 協力에 對備한 北韓住民들의 消費水準向上이 絶對히 要請되고 있으며 會談을 遲延시킴으로써 韓國의 實情把握과 이에 對한 對策을 樹立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權力體制 內部的 強硬派들을 撫摩키 위해 對南革命目標을 堅持하고 對內外 宣傳 活用을 적극 展開함으로써 表面上 積極적인 提案의 公開로 攻勢를 誇示하고 會談遲延의 責任을 韓國側에 轉嫁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는 것이다.

나. 調節委員會에서의 對話의 形式的 運營

北韓側은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 共히 最低의 頻度로 對話를 持續케 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는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危險한 誤解防止의 手段으로서 南北 對話의 價值를 認定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 外交攻勢 強化

北韓은 7.4 南北共同聲明을 金日成의 統一 原則이 反映된 것으로서 自己를 主張이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고 宣傳하듯이 南北 調節委員會 구성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도 外勢를 排除한 自主的 平和統一을 해야 한다는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勝利이며 이를 採択하게 된 것도 「黨과 共和國」의 努力의 結果라고 合理化시켜 宣傳함으로써 北韓側이 優位를 確保하여 會談을 이끌고 있는 듯한 印象을 對内外에 浮刻시키려 하고 있으며 美·日 등의 外勢排除에 더욱 注力할 것이 明白하다.

北韓은 最近 急變하는 國際情勢가 그들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判斷코 國際的 地位向上을 圖謀하기 위해 위장된 平和指向 姿勢를 적극 誇示 外交關係의 增設과 韓國과의 對策 또는 優勢한 立場에서의 2個의 韓國觀의 既定 事實化를 摸索하는데 總力外交를 展開하고 있다. 그네들은 今年度 제 28次 유엔총회에서의 韓國問題 討議 再開와 北韓의 討議參加를 적극 推進키 위해 지난 73年 2月 9日부터 5月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長·次官級을 團長으로 한 16個 代表團과 1개 藝術團이 70余個國을 巡訪하여 4개국과 國交樹立 15個國과 유엔에서의 北韓支持를 위한 共同聲明發表를 했으며 특히 國際緊張緩화와 유니버살의 추세 및 各國의 實利追求에 따른 北韓 5個國의 對北韓 承認等 (노르웨이 제외)과 지난 4월의 IPU 加入 (10月), 5월의 WHO 加入 등을 가져왔던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적극적인 外交攻勢는 韓半島上에서의 긴장지속의

원인을 美軍 (유엔군) 주둔에 결부시켜 美軍撤収를 促求하는 内外與論의 誘導를 企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 南北間 緊張狀態의 持續

7.4 南北共同聲明에서 「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조치를 취하기로 合意」하였다.

또한 同年 11月 2日~4日까지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 會議에서 南北關係의 改善 및 緊張緩和等에 合意를 보았고 11月 10日 0時를 期해 對南 對北放送과 軍事分界線上에서의 擴声器에 의한 對南 對北放送과 相對方 地域에 대한 빠라 살포를 中止하기로 合意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은 緊張緩和를 追求하기는 고사하고 7.4 南北聲明以後 韓國에 對한 非難은 勿論이고 武裝간첩까지 남파시켜 武裝挑發을 자행하고 있다. 그 實例로서 最近의 休戰線上에서의 銃擊事件을 비롯한 非武裝地帶共匪浸透, 牛島 金塘島의 武裝間諜浸透 等 일련의 挑發行爲로 南北對話의 破壞策動과 더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지난 3月 14日~16까지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가 그네들의 「軍事5個項目」의 先決主張 때문에 會談이 정체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때를 같이 하여 시작된 韓國에 對한 非難과 中傷宣傳은 明白히 「大小를 막론하고 武

裝挑發을 하지 않는다」 「서로 相對方을 비방 증상하지 않는다」는

7.4 南北聲明의 위반을 넘어서 故意로 南北의 對話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南北 平和統一의 口號와는 달리 祖國分斷의 固定化를 對外的으로 策動하면서 한쪽에서는 武力挑發로 緊張狀態를 激化시켜 韓國의 體制를 顛覆하려는 劃策임이 分明하다.

이와같은 北韓의 行動은 平和統一의 宣傳아래 「全人民의 武裝化, 全土의 要塞化 軍의 幹部化 軍裝備現代化」를 수행해온 7.4 南北共同聲明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가고 있음이 뚜렷하다.

지 脆弱性으로 인해 容易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점은 逆으로 우리가 잘 利用만 하게 되면 現時點에서 보다 有利한 結果를 誘導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側이 追求하는 協商의 目的과 그 運營테크닉에 對備키 위해서는 下記와 같은 點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1. 北韓이 아직도 主張하고 있는 暴力革命論을 拋棄시키는데 보다 能動的인 姿勢가 必要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南韓의 力量培養과도 直結되는 問題이지만 그보다 暴力革命을 直接 粉碎할 수 있는 軍事的 強化는 繼續 維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調節委員會에서도 우리側이 主張한 바 있는 北韓의 軍事先決條件에 對한 合理的인 反駁理論과 根拠를 定立해야 할 것이다.

2. 南北協商에서 本來의 우리의 立場인 段階論, 즉 人道的인 것으로부터 出發하여 非政治的인 것, 그 다음으로 政治的인 問題 解決이라는 立場을 繼續 主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立場은 國內外的으로 支持 받을 수 있는 가장 合理性을 띄고 있기 때문에 北韓側으로서도 正面으로는 拒否할 수 없을 것이다.

3. 國際社會에 對해 우리의 協商立場 및 態度의 正當性과 合理性을 明白하게 알려줌으로써 國際的인 支持勢力을 얻는데 보다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이것은 相對的으로 北韓側의 外交攻勢를 막는 根本對策이기도 하다.

4. 南北協商에서 隨行員의 數를 大幅的으로 增加시켜 北韓側 隨行員들로 하여금 南韓의 實狀을 보다 많이 알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곧 北韓住民들에게 南韓의 發展狀을 알릴 수 있는 唯一의 方法인데서도 큰 意義를 지닌다.

5. 南北會談의 進行間隔은 될 수 있는 한 그 時間的 間隔을 좁혀서 수시로 開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有利하다. 왜냐하면 北韓側의 問題提起는 항상 不合理性을 띤 거의 억지에 가까운 것인데다 또한 代表들의 現地裁量權이 없기 때문에 會議는 항상 우리側의 主導下에 그 運營이 左右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會議場所 問題에 있어서는 서울과 平壤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다른 場所로 變更할 것에 對한 主張을 먼저 提起함과 아울러 代表들의 宿所 또한 반드시 서울과 平壤에만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地方의 余地都市에도 定할 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는 北韓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問題일 것이다. 우리에게 比하여 諸般條件이 不利하기 때문에 南과 北의 懸隔한 差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될 것이다.

7. 우리側 隨行員도 또한 隨時로 交替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北韓을 參觀할 수 있게 하여 北韓實情을 우리 社會에 널리 理解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北韓側에서 主張하는 法律的, 社會的 環境改善에 對한 우리의 對

案으로써 그에 該當하는 与件들을 北韓側에 要求貫徹시켜야 한다.

9. 南北協商에 對한 國民의 뒷받침과 支持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現在까지 進行해온 南北協商問題와 더불어 解放後 오늘날까지 北韓側이 取해온 協商테크닉 問題를 적어도 輿論을 造成하고 誘導할 수 있는 知識層에게는 充分한 說明과 解說이 있어야 될 줄 안다.

10. 마지막으로 南北協商의 繼續与否問題를 보면 北韓側으로서는 事實 더 이상 會談의 進行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처음 南北會談이 進行되던 南韓社会内에서 그들이 바람직한 方向으로의 内部變化가 생겨나리라 믿었다. 그러나 會談이 進行되면 될수록 오히려 北韓 自体内에 보다 不利한 方向으로의 變化가 나타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會談을 繼續 이끌어 가야만 할 問題点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強力한 總力体制를 確立하여 南北協商을 繼續 進行할 수 있는 힘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裝挑發을 하지 않는다」 「서로 相對方을 非難 憎상하지 않는다」는
7.4 南北聲明의 위반을 넘어서 故意로 南北의 對話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한편에서는 南北 平和統一의 口號와는 달리 祖國分斷의
固定化를 對外的으로 策動하면서 한쪽에서는 武力挑發로 緊張狀態를
激化시켜 韓國의 體制를 顛覆하려는 劃策임이 分明하다.

이와같은 北韓의 行動은 平和統一의 宣傳아래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軍의 幹部化 軍裝備現代化」를 수행해온 7.4 南
北共同聲明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가고 있음이 뚜렷하다.

四 . 우 리 의 對 備 策

上述한 바와 같이 南北協商에 있어서의 北韓側의 立場과 態度에 는 一貫性 있는 몇가지 原則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어떠한 協商이건 恒常 北韓은 그들의 基本的인 戰略目的을 達成키 위한 戰術로써 行해지고 있다. 둘째, 協商 問題의 內容과 會議運營에 있어서는 그들이 主導權을 잡고 會議를 이끌어 가는 方向으로 노력한다. 셋째, 그들은 어떠한 會談에서나 그들의 基本 戰略과 直結되는 政治性的 賦与로서 會談場을 政治宣傳場으로 利用 한다. 넷째, 南北에 局限되는 協商問題를 對外宣傳에서도 北韓이 有利한 方向으로 이를 最大限으로 利用한다. 다섯째, 協商을 憑藉 하여 自体内에서는 體制強化 및 住民들에 對한 最大限의 動員을 한 다. 여섯째, 協商의 失敗를 감안해서 그 責任을 南韓側에 轉嫁시 키기 위한 口實을 恒常 마련해두고 있다는 點 등이다.

이러한 原則속에서 南北協商을 進行시키는 그들의 窮極的인 目的 은 다름아닌 그들이 從來에도 主張해온 所謂 「南朝鮮革命과 北韓旗幟 下의 祖國統一」인 것이다. 우선은 南朝鮮 革命을 위한 力量強化 와 環境造成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南北協商의 成敗与否는 不問하고 항상 세 가지 側面에서 利得 을 얻기 위한 노력을 傾注하고 있다. 그것은 北韓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祖國統一의 三大力量強化인데 1, 北韓을 政治, 經濟, 軍 事的으로 強化하는 것 2, 南韓에서의 革命力量強化 3, 國際革命力

량과의 團結強化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側面의 力量強化는 最近 南北協商을 통해서 이를 역력히 찾아 볼 수 있다.

北韓의 革命力量 強化를 위해서는 政治的으로는 1972年 12월에 採択한 社會主義憲法과 그에 基礎한 金日成中心의 보다 強力한 權力 體制의 形成이고, 經濟的으로는 消費製工業의 急速한 發展과 相對的으로 軍事費의 減縮 및 6個年計劃의 期限前 完遂 目標, 軍事的으로는 南北協商의 武力的 뒷받침으로서의 四大 軍事路線의 再強調, 社會的으로는 全體 北韓 住民에 對한 革命化 勞動階級化의 促進 그리고 金日成의 所謂 主体思想으로부터 出發되는 統一路線의 勝利로써 그의 偉大性 부각 등이 北韓 革命力量強化인 것이다.

南韓 革命力量 強化를 위해서는 南朝鮮 革命을 위한 條件造成으로서 反共體制와 宣傳教育 및 意識의 弱体化 또는 對北 心理戰 中止, 統一革命黨의 부각과 그 宣傳強化, 反共法 國家保安法 撤廢主張, 反美 思想 鼓吹와 金日成 偉大性에 對한 宣傳強化등이 그 主를 이룬다.

國際革命力量 強化에 있어서는 積極的인 外交活動 展開와 1972. 73年 대대적인 巡訪外交實施, 國際機構인 I.P.U, W.H.O 등에 加入 成功, 國際的 地位 向上을 目的한 修交國 擴大와 U.N의 새로운 情勢에 適應한 戰略으로서 南北協商을 北韓側에 有利하게 輿論을 造成 하고 알제리아案등을 提起케 함으로써 南韓에서의 UN 軍撤収와 언커 크解體등의 問題를 拳論케 하는데 成功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南北協商에 있어서는 아무리 北韓側에 有利한 結果를 가져 오겠음 自己들이 努力한다고 하더라도 北韓體制 自体가 가진 여러가

지 脆弱性으로 인해 容易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점은 逆으로 우리가 잘 利用만 하게 되면 現時點에서 보다 有利한 結果를 誘導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側이 追求하는 協商의 目的과 그 運營테크닉에 對備키 위해서는 下記와 같은 點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1. 北韓이 아직도 主張하고 있는 暴力革命論을 拋棄시키는데 보다 能動的인 姿勢가 必要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南韓의 力量培養과도 直結되는 問題이지만 그보다 暴力革命을 直接 粉碎할 수 있는 軍事的 強化는 繼續 維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調節委員會에서도 우리側이 主張한 바 있는 北韓의 軍事先決條件에 對한 合理的인 反駁理論과 根拠를 定立해야 할 것이다.

2. 南北協商에서 本來의 우리의 立場인 段階論, 즉 人道的인 것로부터 出發하여 非政治的인 것, 그 다음으로 政治的인 問題 解決이라는 立場을 繼續 主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立場은 國內外的으로 支持 받을 수 있는 가장 合理性을 띄고 있기 때문에 北韓側으로서도 正面으로는 拒否할 수 없을 것이다.

3. 國際社會에 對해 우리의 協商立場 및 態度의 正當性과 合理性을 明白하게 알려줌으로써 國際的인 支持勢力을 얻는데 보다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이것은 相對的으로 北韓側의 外交攻勢를 막는 根本對策이기도 하다.

4. 南北協商에서 隨行員의 數를 大幅的으로 增加시켜 北韓側 隨行員들로 하여금 南韓의 實狀을 보다 많이 알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곧 北韓住民들에게 南韓의 發展狀을 알릴 수 있는 唯一의 方法인데서도 큰 意義를 지닌다.

5. 南北會談의 進行間隔은 될 수 있는 한 그 時間的 間隔을 좁혀서 수시로 開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有利하다. 왜냐하면 北韓側의 問題提起는 항상 不合理性을 띤 거의 억지에 가까운 것인데다 또한 代表들의 現地裁量權이 없기 때문에 會議는 항상 우리側의 主導下에 그 運營이 左右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會議場所 問題에 있어서는 서울과 平壤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다른 場所로 變更할 것에 對한 主張을 먼저 提起함과 아울러 代表들의 宿所 또한 반드시 서울과 平壤에만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地方의 余地都市에도 定할 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는 北韓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問題일 것이다. 우리에게 比하여 諸般條件이 不利하기 때문에 南과 北의 懸隔한 差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될 것이다.

7. 우리側 隨行員도 또한 隨時로 交替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北韓을 參觀할 수 있게 하여 北韓實情을 우리 社會에 널리 理解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北韓側에서 主張하는 法律的, 社會的 環境改善에 對한 우리의 對

案으로써 그에 該當하는 与件들을 北韓側에 要求貫徹시켜야 한다.

9. 南北協商에 對한 國民의 뒷받침과 支持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現在까지 進行해온 南北協商問題와 더불어 解放後 오늘날까지 北韓側이 取해온 協商테크닉 問題를 적어도 輿論을 造成하고 誘導할 수 있는 知識層에게는 充分한 說明과 解説이 있어야 될 줄 안다.

10. 마지막으로 南北協商의 繼續與否問題를 보면 北韓側으로서는 事實 더 이상 會談의 進行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처음 南北會談이 進行되면 南韓社会内에서 그들이 바람직한 方向으로의 内部變化가 생겨나리라 믿었다. 그러나 會談이 進行되면 될수록 오히려 北韓 自体内에 보다 不利한 方向으로의 變化가 나타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會談을 繼續 이끌어 가야만 할 問題点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強力한 總力体制을 確立하여 南北協商을 繼續 進行할 수 있는 힘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